

産業革命과 勞動者의 生活水準

——論爭史的 展望——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古典的 段階의 論爭
 - 1. 토인비 以前의 諸說
 - 2. 토인비—해먼드 命題와 悲觀論
 - 3. 윌레콕의 反論
- III. 最近의 論爭
 - 1. 에슈톤의 問題提起와 樂觀論
 - 2. 호브스보움의 悲觀論
 - 3. 하아트웬의 所說
 - 4. 悲觀論과 樂觀論=討論
- IV. 要約과 展望

I. 序 言

産業革命은 스스로가 創出한 勞動者의 福祉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 그것은 急速한 技術革新을 통해서 높은 生産性を 實現하고 國民經濟의 生産規模를 크게 擴大시킴으로서 그에 對應해서 勞動者의 生活水準도 向上시켰는가? 또는 그것은 經濟의 量的擴大에 머물지 않고 經濟社會의 構造的인 轉換을 惹起시킴으로서 變革期의 緊張속에서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低下시켰는가? 이 問題는 産業革命이 進行되고 있던 當時에 이미 識者의 重要한 關心事가 되고있었을 뿐만아니라 19世紀後半에 들어와서는 經濟史家들의 重要한 研究課題로서 論議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産業革命史研究의 中心的 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事實 産業革命과 같은 커다란 社會經濟的 變革의 過程에서 이 問題는 單純히 當時의 經濟學者가 直面한 實踐的인 課題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變革의 過程을 直接 經驗하고 그의 意味를 생각하는 社會批評家들의 現實的인 關心事였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스미드(A. Smith)와 맥코울리(T.B. Macaulay)와 같이 機械의 出現과 그것이 結果한 巨大한 生

產力에 의한 勞動者의 物質的 福祉向上에 絕對的인 確信을 갖는 樂觀論을 主張하고 다른 편에서는 리카도(D. Ricardo), 맬더스(R. Malthus), 사우더(T. Southey) 그리고 콜리지(S.T. Coleridge)와 같이 物質的 生産力의 큰 增大에도 不拘하고 그의 不公平한 分配와 工場制度가 낳은 肉體的 疾病 및 道德的 墮落에 의한 勞動者의 不幸을 告發하는 悲觀論을 主張하여 相反되는 立場에서 論議를 거듭했던 것이다.

同時代人的 現實的인 問題로 提起되었던 이 問題가 19世紀 後半 특히 그 末葉에 들어서 經濟史學의 重要한 研究課題로서 論議됨으로서 이 問題를 둘러싼 樂觀論과 悲觀論의 論爭은 科學的인 論據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境遇에도 產業革命史觀과 研究方法의 差異가 相反되는 見解를 結果했다는 것은 事實이며 특히 19世紀末에서 20世紀初에 걸쳐서 이루어진 論爭에서 그러한 差異는 明白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歷史發展을 斷續的인 過程으로 보고 產業革命을 過去와 斷絶된 새로운 社會經濟體制에의 急激한 變革過程으로 認識해서 그것을 構造的=質的方法으로 把握하는 立場에서는 悲觀論이 主張되고 그와 反對로 歷史發展을 連續的인 過程으로 보고 產業革命을 連續的인 量的 成長의 過程으로 認識해서 그것을 計量的 方法으로 把握하는 立場에서는 樂觀論이 主張되었다. 토인비(A. Toynbee)—해먼드夫婦(J.L. and Barbara Hammond)의 悲觀論과 클래팸(J.H. Clapham)의 樂觀論의 論爭은 바로 그러한 根據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論爭은 第2次大戰後의 오늘날에는 問題를 全的으로 物質的인 側面에 限定하고 計量的인 方法에 의해서 다루어지면서도 同意된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애슈톤(T.S. Ashton)—하아트웰(R.M. Hartwell)에 의해 代表되는 樂觀論者들이 產業革命期의 國民所得의 增加와 그의 比較的 公正한 分配, 實質賃金의 上昇과 消費水準의 向上을 들어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對해서 호브스보웬(E.J. Hobsbawm)에 의해 代表되는 悲觀論者들은 不公平한 分配, 失業增大, 實質所得의 減少, 投資增大, 消費水準의 低下등을 들어 그들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지 못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둘러싸고 이렇듯 오랜 論爭이 展開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產業革命史研究의 中心的인 問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產業革命 또는 工業化의 究極의 目的이 國民全體의 福祉向上에 있다고 한다면 그 過程에서의 國民의 大多數를 차지 하는 勤勞者의 生活水準의 向上與否는 工業化의 成敗를 가름하는 重要한 基準이 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는 工業化가 全世界의 規模에서 急速히 推進되고 深化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學問的으로만이 아니라 現實的으로도 매우 實踐的인 意義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는 이 問題에 관한 論爭의 過程과 그의 內容 및 成果를 展

望한 것이다.

II. 古典的 段階의 論爭

1. 토인비 以前의 諸說

英國의 産業革命期에 勞動者의 生活水準은 改善되었는가 또는 惡化되었는가. 이 問題에 관한 論議는 産業革命 그自體와 함께 오랜 것이다. 이 問題는 産業革命이 進行되고있는 그 過程에서 經濟學者들을 비롯해서 많은 論者에 의해서 論議되었고 그 論議는 그後 時代의 背景에 따라서 濃淡의 差를 가지면서 繼續되었으며 특히 19世紀末葉 以後부터는 經濟史家들에 의해서 産業革命史研究의 하나의 重要한 課題로서 크게 論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期間에 걸쳐서 論議되면서도 이 問題에 관해서 一般의인 結論에 到達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産業革命期에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고 主張하는 樂觀論이 있는가 하면 그의 어두운 側面을 強調하는 悲觀論이 있어 이들 兩論의 論爭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1)

産業革命의 밝은 面을 強調하는 樂觀論은 이미 스미드의 思想에서 나타나고 있다. 『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展開된 그의 傳統的 權威主義에 대한 批判과 自由主義의 調和의 思想은 産業革命이 結果할 工業社會에 絶對的인 信賴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産業革命의 始期에 다가오는 工業社會에 絶對的인 信賴를 두고 樂觀論의 思想的 根據를 提示했던 스미드와는 달리 産業革命이 相當히 進展되고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社會經濟的 諸問題가 나타나게 된 19世紀 前半期에는 그의 어두운 面을 強調하는 悲觀論이 一般의으로 나타났다. 悲觀論의 理論的인 先驅는 리카아도와 말더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長期的으로 繼續的인 技術革新의 可能性을 그의 理論體系에 導入하지 못했던 리카아도의 收獲遞減의 法則(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그로 하여금 停滯論者로 만들었고 그것은 人口增加와 關聯해서 그로 하여금 悲觀論者로 만들었다. 또한 같은 根據에 立脚한 人口法則은 말더스로 하여금 深刻한 悲觀論者로 만들었다. 이러한 理論은 當時의 悲觀論에 有力한 理論的 基盤을 提供했던 것이다. (2)

(1) 이 主題와 關聯해서 나타난 多數의 業績을 여기에 모두 提示할수는 없으며 그 主要한 것은 以下の 引用으로 代身한다.

(2) S.G. Checkland, "Growth and Progress: The Nineteenth Century View in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12, No. 1, 1959, pp.49-55; A.J. Taylor, "Progress and Poverty in Britain, 1780-1850: A Reappraisal," *History*, Vol. XLV, No. 153, February, 1960, p. 16.

그러나 19世紀 前半期에 産業革命의 社會經濟的 成果에 關해서 直接的인 論評을 加한 것은 敍上한 當時代의 指導的인 經濟學者 自身들 보다는 評論家들이 많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一般的으로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低下를 主張하는 悲觀論者였다.⁽³⁾ 그들은 어떠한 客觀的인 社會分析의 基礎위에서가 아니라 主觀的으로 理想化된 過去의 田園의 生活에 비추어서 工業化가 結果한 새로운 諸現象을 非難했다. 하아트웰에 의하면 工業化에 關한 가장 酷評家였던 사우디(T. Southey)는 産業革命이 招來한 “工場制度의 直接的이며 또한 苛酷한 結果는……그것이 創出하는 富에 比例해서 肉體의 및 道德的 害惡을 낳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콜리지(S.T. Coleridge)는 “土地의 耕作者는 救恤稅 納付를 強要받고 餘他의 사람들은 새로운 富者의 工場을 위해서 機械에 編入된다. …그렇다 國富의 機構는 國力을 構成해야 할 人들 의 不幸, 疾病 및 墮落으로 形成되고 있다”고 論難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러한 悲觀論에 대해서 當時 樂觀論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맥코울리(T.B. Macaulay)와 유어(A. Ure)는 가장 熱烈한 工業化의 擁護者였다. 맥코울리는 1830年에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英國의 勞動者階級은 一部는 그들 自身의 淺慮에 의해서 그리고 一部는 그들의 支配者들의 誤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不平과 苦澀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 全體的으로 物質的 快適에 關해서 舊世界의 어느 地域의 住民보다도 良好하다. 바로 그러한 理由로 말미암아 英國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는도 苦痛이 甚하게 느껴지고 憂鬱하게 痛嘆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勞動者階級이 過去 30年間 英國에서 보다는 快適한 狀態에 있었던 如何한 大國에 關한 滿足할만한 如何한 記錄도 過去나 現在에서 發見할 수 없다고 告白해야 한다. ……給仕, 職工 그리고 農民은 보다 豊富하고 美味한 食糧의 供給을 받고 보다 많은 衣類와 家具를 갖고 있다. ……그래도 英國이 1790年에 있어서 보다는 貧困한 것일까? 支配者의 失政에도 不拘하고 英國은 繼續해서 보다 富裕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確信한다. 때로는 停滯가 있고 短期의 後退가 있었으나 一般的인 傾向에 關해서는 疑心할바 없다. 하나의 波濤가 退去할지도 모르지마는 潮流는 明白히 到來하고 있는 것이다.”⁽⁵⁾ 또한 유어는 “工場制度는 勞動者의 生活의 快適을 害롭게 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

(3) 하아트웰은 그들 中의 代表的인 人物로서 Wordsworth, Shelley, Coleridge, Southey, Peacock, Hood, Carlyle, Kingsley, the Brontes, Mrs. Gaskell, Dickens, Disraeli, Arnold, Ruskin 등을 들고 있다. R.M. Hartwell, “Interpretatio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IX, No. 2, June 1959, p.236.

(4) *Ibid.*, p. 237.

(5) *Ibid.*, p. 238.

나라 그의 偉大한 守護神이다.”⁽⁶⁾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19世紀 30年代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悲觀論이 優勢했으나 위에서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悲觀論이나 樂觀論이나 할 것 없이 當時의 主張은 客觀的인 科學的 基礎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政治的 道德的 및 人道主義的 그리고 심지어는 美學的인 根據에서 이루어진 것이다.⁽⁷⁾ 즉 그들은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主觀的인 價值基準에 미추어서 論評했고 工業化가 結果한 成果보다도 그들이 經驗하지 못한 새로운 害惡에 注目한 그들은 一般的으로 悲觀論의 立場에 서게 되었다. 工業化의 進展에 따르는 새로운 社會關係의 形成, 工場制의 出現, 새로운 勞動者階級의 出現과 成長, 兒童 및 婦女 勞動者의 增大, 都市에의 人口集中과 貧民의 增大, 工業中心地의 成長에 따르는 田園의 風景의 破壞 등 모두가 悲觀論者의 主張의 有力한 根據가 되었고 그것은 工業化가 가져온 成果보다도 強調되었던 것이나, 事實 19世紀의 最初의 30~40年間은 英國에서 工業化가 本格的으로 進展된 時期이며 그 過程에서 經濟規模의 量的擴大가 顯著히 이루어짐과 同時에 그의 質的轉換이 急速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社會的緊張이 高潮된 時期이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見解의 差異도 主로 이 時期에 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國의 產業革命은 19世紀中葉에는 完成되게 되고 그것이 이룩한 果實은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全般的으로 뚜렷하게 높이게 되었다. 社會緊張을 隨伴하면서도 工業化가 結局에는 社會進歩에 커다란 貢獻을 했다는 認識이 一般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에서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해서 樂觀論이 有力해진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그에 앞서서 1840年代에는 그 以前의 論者들이 主觀的인 價值基準에 의해서 產業革命의 結果를 評價하는 立場과는 달리 廣範한 調查研究과 統計資料를 利用해서 보다 客觀的인 評價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이러한 보다 科學的인 基礎에 선 悲觀論의 代表가 『英國勞動者階級의 狀態』(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1845)의 著者인 英겔스(F. Engels)이며 樂觀論의 代表가 『國民의 進歩』(The Progress of the Nation, 1847)의 著者인 포오더(G. R. Porter) 및 有名한 『物價史』(A History of Prices, 6 Vols., 1838-57)의 共著者인 토크(T. Tooke)인 것이다.⁽⁸⁾ 英겔스

(6) A. Ure, *Philosophy of Manufacture: or An Exposition of the Scientific, Moral, and Commercial Economy of the Factory System of Great Britain*, 1835, p. 329.

(7) Hartwell, *op. cit.*, pp. 237, 240, 242.

(8) 「하아트웰」은 樂觀論者 맥코올리의 雄辯과 感情을 悲觀論者 사우더 및 할리저의 그것과 對照시키고 科學的悲觀論者인 英겔스에 科學的樂觀論者로서 포오더와 토크를 對照시키고 있다. *Ibid.*, p. 238. 한편 테일러는 그의 論文의 序頭에 各各 英겔스와 포오더의 主張을 引用함으로써 兩者의 對照點을 強調하고 있다. Taylor, *op. cit.*, p. 16.

는 産業革命에 의해서 從來 快適하고 安定된 生活를 享受해온 勞動者들이 不安定한 狀態에 떨어지고 그들의 生活水準도 惡化되었다고 主張함으로써 強力한 悲觀論을 展開했으며 그것은 그후의 悲觀論에 相當한 影響을 주었다. 그러나 19世紀中葉에는 計量的分析에 基礎를 둔 樂觀論이 有力했다. 포터는 1847년에 다음과 같이 記述했다. “19世紀初의 英國民大衆의 狀態를 뒤돌아보고 오늘날 모든 側面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다큰 快適과 尊嚴性的 徵候를 볼때 적어도 英國에서는 社會的改善의 諸要因이 成功的으로 作用해왔고 그리고 그들 諸要因은 國民大多數에 對해서 快適度의 增大를 가져왔고 또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明白하다.”⁽⁹⁾ 事實 1873년의 大不況以前의 時期는 經濟的繁榮이 頂點에 到達하고 勞動者의 生活條件도 크게 改善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經濟的條件은 現實問題로서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論爭을 鎮靜시키거나 또는 樂觀論에 有利했다. 그래서 樂觀論者는 1850年以後 漸次 많아졌다. 즉 그레그(W.R. Greg), 사무엘 스마일스(Samuel Smiles), 워드(J. Ward) 등이 그렇고 1884년에 기븐(R. Giffen)은 1840-1880年의 期間에 言及하면서 勞動者의 改善된 生活水準은 死亡率의 低下, 教育의 改善, 犯罪 및 被救恤民의 減少 그리고 貯蓄增加에 反映되었다고 結論했던 것이다.⁽¹⁰⁾

2. 토인비—해몬드命題와 悲觀論

그러나 19世紀의 第4.4半期에 들어서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問題는 새로운 提起되고 그에 관한 論議가 새로운 次元에서 展開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注目되는 것은 이 問題가 經濟史家들에 의해서 學問的으로 論議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또 다시 悲觀論이 強力하게 擡頭되었다는 事實이다. 大不況은 歷史上 最初의 工業化에 의해서 世界經濟에 君臨했던 英國의 經濟的優位를 根本的으로 動搖시켰고 英國經濟에 內在的인 諸矛盾이 激化되어 그속에서 社會改良主義가 크게 擡頭하게 되었다.⁽¹¹⁾ 그들에게 共通된 信念은 社會正義(social justice)가 放任된 自然的秩序에서가 아니라 制度的改革을 包含한 意識的인 努力에 의해서만 實現될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向上은 工業化의 過程에서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인 諸方策에 의해서 비로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的인 問題意識에서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社會經濟的條件이 研究되고 그 結果 一般的으로 悲觀論이 強力히 主張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時期에 樂觀論이 전혀 없었던 것은 勿論 아니다. 叙上한 기븐이라든가

(9) G.R. Porter, *The Progress of the Nation*, 1847, p.532, cit. by Taylor, *op. cit.*, p.16.

(10) Hartwell, *op. cit.*, pp. 238-9.

(11) 에비안協會(Fabian Society)는 1884년에 設立되었다. 拙稿 『도오니論』, 經濟論集, 第V卷 第2號, 1966年 6月, 130面 參照.

러비(Leone Levi)는 1880年代 中葉에 統計的方法을 利用해서 分析한 結果 1875年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은 1850年의 그것에 比해서 뚜렷하게 改善되었다는 것을 主張함으로써 工業化의 進展이 一般적으로 勞動者의 福祉向上에 寄與했다는 것을 論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直接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研究가 아니라 19世紀中葉以後에 관한 것이며(이 時期에 있어서의 勞動者의 福祉向上에 관해서는 一般적인 意見의 一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들의 研究는 社會經濟史家들의 強力한 論陣에 比해서 相對的으로 褪色해보였다.

이러한 속에서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悲觀論을 強力히 主張하고 至大한 影響을 미친 것은 『18世紀 英國의 產業革命에 관한 講義』(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 1884)의 著者 토인비(A. Toynbee)였다. 토인비는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그(스미드—引用者)의 時代에서도 어두운 斷片은 있었으나 지금 우리는 보다 어두운 時期에 接近하고 있다. 그 時期라는 것은 한 나라가 經過한 如何한 時期보다도 悲慘하고 恐怖의 時期이다. 悲慘과 恐怖는 富의 大增加와 함께 貧民의 莫大한 增加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大規模生産 즉 自由競爭의 結果는 諸階級의 急速한 疎外와 大多數의 生産者의 退化로 引導했다.”⁽¹²⁾ 이러한 토인비의 結論은 그 自體로서는 單純한 悲觀論者의 見解라고 看取될수 있지만 產業革命이 “富의 大增加와 함께 貧民의 莫大한 增大”를 結果했다고하는 그의 指摘은 그의 歷史認識의 本質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는 「產業革命」(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用語를 처음으로 歷史的觀念으로 使用하고 그것을 英國의 近代經濟史研究에 있어서의 基礎적인 概念으로 確立함으로써 產業革命을 그 以前과는 基本的으로 相異한 時代에로의 急激한 社會經濟的 變革過程으로 認識했으며 그 過程에서 勞動者의 貧困이 增大했다는 것을 強調했다. 그는 產業革命을 大體的으로 1760-1830年에 걸쳐서 集中的으로 일어난 社會的 및 經濟的 構造의 一大變革이라고 認識함으로써 그것을 過去와 斷絶된 하나의 歷史的時期로 보고 그러한 急激한 革命的過程에서 ‘富의 增大’와 함께 ‘貧民의 增大’를 結果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產業革命의 本質을 “以前에 富의 生産 및 分配를 支配하고 있던 中世의 諸規制에 代身해서 競爭이 나타났다는 것”⁽¹³⁾이라고 指摘하고 그의 主要한 內容으로 첫째 人口의 急速한 增加 특히 都市人口의 增加, 둘째 共同耕作制度의 崩壞, 共同地 및 荒蕪地의 大規模

(12) Arnold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1890, p. 84.

(13) *Ibid.*, p. 85.

「인클로우저」, 小農場의 大農場에의 統合을 內容으로하는 農業革命과 그 結果 나타난 農村 人口의 相對的 및 絶對的 減少 특히 中小農의 沒落, 셋째 工業에서 機械發明에 따르는 家內 工業制度에 代身한 工場制度의 出現, 넷째 交通機關의 變革에 따르는 商業發展의 結果로 서의 工場制度의 發達을 들고 있다.⁽¹⁴⁾ 이러한 產業革命의 結果는 어떠한 것인가. 그는 中 世의 規制에 代替해서 競爭이 一般의으로 나타나고 技術革新이 이루어짐으로써 ‘富의 生 產’이 革命的으로 增加한 한편 ‘富의 分配’에서는 顯著的 不平等이 나타났다고 指摘한다. 農業에서는 地主는 地代의 騰貴에 의해서, 農業者는 農業利潤의 增大에 의해서 莫大한 富 를 蓄積한 反面 農業勞動者의 狀態는 高物價와 賃金低下 그리고 共同權의 喪失에 의해서 悲慘한 것이었다. 같은 現象은 工業에서도 나타났다. 새로운 階級인 資本家의 大雇傭主는 莫大한 財産을 이룩하는 한편 勞動者는 賃金低落, 物價騰貴, 劣惡한 工場勞動條件 그리고 大規模生産이 가져온 景氣變動에 의해서 悲慘한 狀態에 떨어졌다. 雇傭主와 勞動者間의 남은 人的關係는 金錢關係에 代替되었다. “產業革命의 諸結果는 自由競爭이 福祉를 낳지 않으면서 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證明했다.” 그래서 그것은 “커다란 社會革命 즉 政治 的 勢力의 均衡과 諸階級의 相對的地位의 變化”를 가져왔던 것이다.⁽¹⁵⁾

叙上한바에서 알수있는바와 같이 토인비는 產業革命을 單純한 技術革新과 그 結果로 서 全體로서의 富의 大增加를 가져온 經濟的過程만이 아니라 社會關係의 急激한 變化를 가져온 大社會革命으로 認識하고 產業革命의 本質인 「競爭」이 生産의 大增加를 가져 왔 지마는 分配面에서 過去에 없던 커다란 不平等을 가져왔고 그속에서 勞動者의 狀態는 悲 慘한 것이었다고 主張하고 있다.⁽¹⁶⁾ 그래서 그는 이러한 分配上의 不公平을 是正하기 위 해서는 生産에서의 自由競爭은 認定하되 分配面에서는 그것을 抑制하고 社會立法을 通해 서 平等이 實現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¹⁷⁾ 그의 悲觀論은 그의 產業革命論의 論理的인 歸

(14) *Ibid.*, pp.85-93.

(15) *Ibid.*, pp.92-3.

(16) 토인비는 產業革命과 關聯해서 經濟學의 發達에는 네가지 指標가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 즉 첫째는 「富의 諸原因」을 追求한 스미드의 『國富論』(1776年), 다음은 「貧困의 諸原因」을 追求한 말더스의 『人口論』(1798年), 셋째는 富의 分配法則을 探究한 리카도의 『經濟學 및 租稅의 原理』(1817年) 그리고 넷째는 生産의 法則과 分配의 法則을 區別해서 「富는 如何히 分配되어야 하나」라는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 밀(John Steuart Mill)의 『經濟學原理』(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이다. 첫째것은 產業革命의 始點에서 그의 理論의 基礎가 되었는데 대해서 後三者는 「產業革命의 產物」이었던 것이다. *Ibid.*, pp.85-6.

(17) 事實 토인비는 1846年以後 勞動者階級의 生活水準은 自由貿易, 物價의 安定, 賃金의 安定, 規則的就業의 可能, 工場立法, 勞動組合, 協同組合등에 의해서 改善되어왔다고 指摘하고 將來 에도 分配面에서의 政策의 干涉에 의해서 그러한 改善은 이루어진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Ibid.*, pp.143-52.

결이며 그것은 社會改良의 諸方策에 의해서 克服될수 있다는 그의 社會改良主義的 立場에서 急進社會主義的 立場에 선 悲觀論과 根本的인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토인비의 悲觀論의主張은 當時의 有力한 經濟史家에 의해서 強力히 뒷바침되었다. 過去 6世紀間의 物價와 勞賃에 關한 龍大한 統計的 研究業績을 낸 로저스(J. E. Thorold Rogers)는 “長期的으로 보면 勞動者는 아아크라이트(R.Arkwright), 윌트(J.Watt) 및 카아트라이트(E.Cartwright)의 諸發明에 의해서 利益을 보았지만 그 利益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過程에는 깊은 苦惱가 따랐다”고 말하고 19世紀의 最初의 20年間을 “英國勞動者의 全歷史에서 最惡의 時期”⁽¹⁸⁾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時期의 勞動者階級の 貧困의 原因을 첫째로 1833年의 工場法以前에 있어서의 兒童勞動의 無制限 雇傭, 둘째로 勞動組合에 對한 制限 또는 그의 無力化 그리고 셋째로 雇傭主의 慣行과 法律의 偏派의 態度라고 指摘하면서 그보다도 重要한 것으로서 長期에 걸친 對佛戰爭과 그것이 結果한 經濟的 混亂과 社會的 害惡의 救濟를 迅速히 하지 않고 糧價格 維持를 위해서 干涉을 하고 勞動組合의 發展을 阻害한 政府의 賢明치 못한 政策을 들고있다.⁽¹⁹⁾

叙上한 토인비와 로저스의 悲觀論은 커닝검(W. Cunningham)과 애슐리(S.W.Ashley)에게 影響을 주었다. 커닝검은 產業革命이 結果한 物質的 繁榮의 急速한 增進을 是認하면서도 “轉換期에 隨伴되는 不可避한 困難”을 強調하고 그것은 對佛 및 對美戰爭, 景氣變動 그리고 政府의 非賢明한 政策에 의해서 더욱 커졌다고 主張하고 있으며⁽²⁰⁾ 애슐리도 “工場制度의 確立은 비록 社會的 條件이 다른 모든 面에서 滿足할만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커다란 社會的 危險과 困難을 隨伴했다”고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工場制度의 確立에 의해서 ① 機械的 生産方法이 手工業에 代替함으로서 手織工 등의 手工業 生産者들에게 큰 苦惱를 주었고 ② 機械使用의 普及에 따라서 雇傭主와 被雇傭者間의 社會的 分裂을 發生시킴으로서 人的 結合이 金錢的 結合으로 轉換되어 雇傭主는 勞動者의 賃金を 壓迫하고 또는 婦女 및 兒童勞動을 組織的으로 擴大하고 強化했던 것이다.⁽²¹⁾ 한편 토인비의 悲觀論은 웹夫妻(Sidney and Beatrice Webb)와 해먼드(J.L. and B. Hammond)夫妻에게 影響을 주었다. 특히 해먼드夫妻가 그들의 數 많은 著作을 통해서 主張한 悲觀論은 토인비의 그것과 함께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關한 古典學說

(18) J.E. Thorold Rogers, *Six Centuries of Work and Wages*, 10th ed., 1909, pp.485,492 cit. by Hartwell, *op. cit.*, p.231.

(19) Taylor, *op. cit.*, p.25.

(20) W. Cunningham, *The Growth of Industry and Commerce in Modern Times*, 4th ed., 1905, Vol. 3, pp.617,668.

(21) W.J.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1914, pp.159-61.

로서의 地位를 確固히 했던 것이다.

해먼드夫妻의 悲觀論은 하이드웰로하여금 “初期工業化에 關해서 할수 있는 最惡의 解釋”(22)이라고 말하게 할만큼 強力한 것이었다. 그들은 『都市勞働者』(The Town Labourer 1760-1832, 1917)에 붙인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産業革命은 物質力과 그러한 物質力이 주는 機會의 大擴張을 가져왔다. 本書가 主張하는 바는 바로 그런것이지 마는 그 最初의 結果는 恨嘆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革命은 보다 幸福하고 보다 賢明하고 보다 自尊心이 있는 社會를 創造하지를 양고 大衆의 墮落과 모든 것이 利潤에 犧牲되는 都市生活의 急速한 成長을 가져왔다. ……1760年에서 1834年에 이르는 사이의 英國農業 勞働者의 運命을 研究하는 者는 누구나 그들이 顯著히 衰退했다는 것을 疑心치 않을 것이다. ……蒸氣力이 導入된 後半世紀동안 工場工業과 함께 家內工業도 增大했지마는 그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狀態는 漸次 惡化되었다. ……家族所得은 工場의 導入과 함께 增加傾向에 있었다고 主張되고있으며 그러한 推論은 그만큼 根據를 갖고있을 것이다. 그러나 家族所得의 增加는 社會의 幸福度를 測定하는 唯一한 또는 主된 尺度는 아니다. 한 生活體制下에서의 貧者는 다른 生活體制下에서의 덜 가난한 者보다 幸福할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文明은 想像力과 行動을 鼓吹하고 움직이는 모든 諸力과 諸條件의 複合體이기 때문이다. 産業革命에 있어서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文明은 新惡에 의해서 어둡혀졌던 것이다”(23) 해먼드夫妻는 産業革命을 “그自身の 諸問題와 性格을 가진 새로운 文明을 創造하는 社會革命”(24)이라고 보고 그것이 全體의으로는 經濟의 量的인 擴大를 가져 왔으면서도 大衆의 經濟的 社會的 墮落을 結果했다고 主張했던 것이다.(25) 이렇게 해서 토인비에 서 킨닝검, 애슬리, 해먼드夫妻에 이르는 悲觀論은 20世紀初에 學界의 主流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Hartwell, *op. cit.*, p. 230.

(23) J.L. and Barbara Hammond, *The Town Labourer 1760-1832—The New Civilisation*, Vol. I, 1917, in *Guild Books*, 1949, Preface.

(24) *Ibid.*, p. 16.

(25) 前掲 『都市勞働者』를 包含한 해먼드夫妻의 初期의 3部作(『農村勞働者』 *The Village Labourer*, 1760-1832. 2Vols, 1911, in *Guild Books*, 1948 와 『熟練勞働者』 *The Skilled Labourer*, 1760-1832, 1919)은 모두가 이러한 基調에서 著述되고 있다. 『農村勞働者』에서 著者는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워터루(Waterloo)의 戰鬪과 和戰에 뒤이은 커다란 困窮期에 英國이 世界에서 唯一한 幸福한 나라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작은 階級の 獨占이 그대로 계속되는 限英國의 幸福은 殘存할 것이라는 것은 캐슬리(Castlereagh)와 캐닝(Canning)과 같은 政治家의 常識이 었다. 그 階級은 밝고 豐富한 그의 生活 記錄을 文學, 藝術, 政治的傳統, 大演說會와 討論會, 그리고 빛나는 會話와 才氣潑刺한 機智에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富의 그늘인 相續權이 剝奪된 農民, 歡樂의 그늘인 追放된 勞働者, 權力과 矜持의 그늘인 貧困과 犯罪과 羞恥에 빠지는 農村에 관해서는 애매하고 貧弱한 記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The Village Labourer*, pp. 136-7.

3. 클래팸의 反論

悲觀論이 學界의 主流을 차지하고 있던 20世紀初에 있어서도 樂觀論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樂觀論의 主張은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提示되고 있었다. 하아트웰이指摘하는 바에 의하면⁽²⁶⁾ 19世紀前半期の 生活水準의 問題를 解明하는데에 重要한 貢獻을 한 보울리(A.L. Bowley)와 우드(G.H. Wood)는 各各 해먼드夫妻의 論著에 앞서서 19世紀의 賃金에 관한 研究를 通해서 1800—1850년에 平均的 生活水準이 上昇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統計의 研究에 根據를 둔 樂觀論의 見解가 토인비—해먼드 命題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1920年代에 들어서 悲觀論에 對한 有力한 反論이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맨체스터에서는 다니엘(G.W. Daniel)이 1920년에 그의 著『英國의 初期綿工業』⁽²⁷⁾에서 그리고 조오지 언윈(George Unwin)이 1924년에 共著『사무엘 올드노우와 아아크라이트家』⁽²⁸⁾에서 18世紀末에서 19世紀初에 이르는 時期에 人口의 大多數가 困窮했었다고 하는 主張에 異論을 提起했다. 그리고 1925年과 26년에는 悲觀論에 對한 重大한 挑戰이 뒤를이어서 나타났다. 도로티 조오지(Dorothy George)는 1925년에 그의 著『18世紀의 런던의 生活』⁽²⁹⁾에서 死亡率統計에 依據해서 런던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18世紀의 經過過程에서 크게 改善되었다고 主張하고 다음해에 부어(M.C. Buer)⁽³⁰⁾와 그리피드(G. Talfot Griffith)⁽³¹⁾는 各各 1750-1850년에 全體로서 英國의 死亡率이 減少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그동안에 生活水準이 上昇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에 權威를 賦與하고 悲觀論에의 挑戰에 決定的인 힘을 준 것은 캠부리지의 J.H. Clapham이었다. 그리고 그의 龍大한 著作『近代英國經濟史』第1卷⁽³²⁾ (1926年刊)은 새로운 樂觀論의 典據가 되었던 것이다.

클래팸의 勞作은 計量的方法(quantitative approach)에 依해서 構成되고 있다는 點에서 質的方法(qualitative approach)의 「社會經濟史」에 對해서 새로운 劃期的인 것이었으며 오늘날의 近代理論에 依據한 經濟史研究의 先驅가 되는 古典的인 業績이지마는 當面 우리

(26) Hartwell, *op. cit.*, p. 233.

(27) G.W. Daniel, *The Early English Cotton Industry*, 1920.

(28) George Unwin and Others, *Samuel Oldknow and the Arkwright*, 1924.

(29) Dorothy George, *London Life of the Eighteenth Century*, 1925.

(30) M.C. Buer, *Health, Wealth and Population in the Earley Day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1926.

(31) G.T. Griffith, *Population Problems of the Age of Malthus*, 1926.

(32) J.H.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The Early Railway Age 1820-1850*, 1926.

의 問題와 關連시켜서 볼때 그러한 方法이 그의 樂觀論의 基礎가 되고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그는 그의 大作에 부친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統計學者들은 언제나 近似한 眞實을 認識해왔으나 歷史家は 너무나도 頻繁히 親近한 文筆의 傳統을 따라왔다. 또한 人民憲章의 起草와 大博覽會와의 사이의 어느 時期에 이르기까지 萬事가 勞動者에게는 漸次로 惡化되고 있었다는 傳說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1820-1 年の 物價 下落以後에 貨金一般——勿論 모든 사람의 貨金이 아니라——의 購買力이 革命 및 나폴레옹 戰爭直前보다도 明白히 컸었다는 事實은 그러한 傳說과 너무나 符合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事實은 거의 論及되지 않고 貨金과 物價에 관한 統計學者의 著作은 社會史家에 의해서 恒常 無視되고 있다. 한 구름의 職業의 運命에 관한 最近의 研究에서 衰退의 傳說은 本文에 나타나고 若干의 修正의인 貨金에 관한 數字는 附錄에 나타나고 그의 相關關係는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社會經濟史가 數字와 分離되고 있다는 것을 象徵하고 있는 것이다.”⁽³³⁾

이러한 認識에서 그는 計量的方法을 그의 經濟史體系의 構成에 利用하고 있으며 그속에서 그는 19 世紀의 貨金統計 및 商品價格에 관한 資料에 依據해서 英國의 都市 및 農村 勞動者의 購買力은 1785 年에서 1850 年에 이르는 동안에 크게 上昇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³⁴⁾ 그는 叙上한 보울리와 우드의 貨金統計와 실버링(N. J. Silberling)의 生計費指數⁽³⁵⁾를 基礎로해서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論하는 속에서 특히 都市의 工業 勞動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史料利用이 可能한 都市 또는 工業 勞動者의 모든 階級에 대해서 共同手織綿織業과 같은 斜陽産業——重要的 例外——을 除外하고 貨金은 (1850 年까지의 -- 引用者) 60 年間에 顯著히 上昇했다. 런던의 煉瓦工이라든가 植字工과 같은 幸運한 階級에게는 貨金은 40% 以上 上昇하고 幸運不運間에 都市 및 工業 勞動者大衆에게는 아마도 40% 上昇했다.”⁽³⁶⁾ 이렇게 해서 그는 産業革命期에 勞動者의 平均的인 生活水準이 低下했다는 「傳說」에 대해서 攻撃을 加했던 것이다.

이러한 클래팸의 結論은 그의 學識과 權威에 의해서 産業革命의 現代的 解釋에 하나의 轉機를 가져왔다. 그는 歷史發展을 連續的過程으로 보고 그것은 斷絶이라던가 「革命」

(33) *Ibid.*, p. vii.

(34) *Ibid.*, pp. 128, 466, 561.

(35) 後述하는 바와 같이 실버링의 指數는 오늘날에는 그의 缺陷이 指摘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依據한 클래팸의 結論도 修正되어야 한다고 指摘되고 있다. T.S. Ashton, “The Standard of Life of the Workes in England, 1790-183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ix, 1949, pp. 29-30. 參照

(36) Clapham, *op. cit.*, p. 561.

이 아니라 끊임없이 進步하는 것으로 보았다. 事實 클레팜은 그의 大著에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전혀 쓰고있지 않다는 事實은 有名하다. 이러한 認識에서 그는 社會經濟史家가 外面하는 傾向에 있던 計量的方法을 利用하여 強力한 樂觀論을 展開했으며 그것을 契機로해서 悲觀論에 대한 強力한 批判이 뒤를이어서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悲觀論者의 代表인 해먼드夫妻의 主張을 그들이 依據하고 있는 資料批判까지 하면서 신랄하게 批判한 것은 헛트(W.H.Hutt)였다. 그는 해먼드夫妻가 全的으로 依存한 1832年의 議會의 委員會報告書(Sadler's Report)가 委員長인 새드러의 偏派的인 立場에서 細心하게 蒐集된 事例로서 構成되고 있으며 以前에 나타나고 있는 勞動者의 酷使가 그 後에도 그대로 行해지고 있는 듯이 보이게하는 巧妙한 宣傳的手法을 利用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그 報告書의 信憑性을 根本的으로 否定하고 거기에는 工場制가 낳은 害惡을 誇張하는 一般의 傾向이 있었다고 結論짓고 있다.⁽³⁷⁾ 1928年에는 그레고리(T.E. Gregory)⁽³⁸⁾가 悲觀論을 批判하고 1930年에는 아이비 핀치백(Ivy Pinchbeck)⁽³⁹⁾이 大多數의 工場勞動者 특히 婦女勞動者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論했다. 그리고 1931年에 조오지(D. George)는 “世界의 大部分에서 工業化는 下層階級에게는 物質文明의 進歩, 生活水準의 向上, 地位의 改善 그리고 政治權力의 增大를 意味했다. 그리고 그것은 健康의 增進, 壽命의 延長, 勞苦의 輕減을 가져왔고 그와함께 餘暇의 增大를 가져왔다”⁽⁴⁰⁾고 主張했던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主張에 産業革命期의 人口問題에 관해서 커다란 業績을 남긴 前述한 부어와 그리피드가 加擔해서 強力하게 樂觀論을 展開했던 것이다.

이러한 批判에 대해서 해먼드(J.L. Hammond)는 1930年에 反論을⁽⁴¹⁾ 提起하고 그 속에서 그는 物質的側面에 관한 限 클레팜說을 認定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反面에 勞動者는 精神的인 側面에서 커다란 犧牲을 지렀다고 指摘하고 이러한 有形的利益과 無形の損失과의 比較에서 後者が 차지하는 意義가 결코 적은것이 아님을 強調하고 있다. 그는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統計에 의해서 物質的側面의 改善을 測定할수 있는 限 物質的 側面의 改善이 있었다는 것은 認定될 것이다.

(37) W.H. Hutt, "The Factory System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Economica*, VI, 1926; reprinted in F.A. Hayek(ed), *Capitalism and the Historians*, 1954.

(38) T.E. Gregory, *An Introduction to Tooke and Newmarch's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from 1792 to 1856,"* 1928.

(39) Ivy Pinchbeck, *Women Worker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1930.

(40) D. George, *England in Transition*, 1931, p.65. cit. by Hartwell, *op. cit.*, p.235.

(41) J.L. Hammo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Discontent," *Economic History Review*, ii, 1930.

그러나 같은 事實을 研究하는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悲慘하다는 印象을 받고 다른 한사람은 幸福하다는 印象을 받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러한 差異는 그들이 屬하는 階級差에서 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들이 가지는 政治的見解의 差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實際에는 人間의 事物을 보는 一般的인 觀點의 差에서 오는 것이다. 人間이 그의 心像을 通해서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苦惱하는 가는 統計에 의해서는 別로 明白히 할수는 없다. 만약에 그러한 즐거움이라던가 苦惱를 重要視않는다면은 그 時代의 進歩 與否는 物質的繁榮의 測定에 의해서 計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것을 重要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問題를 評價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統計에 대해서는 二次的인 地位를 賦與함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다.”⁽⁴²⁾ 이렇게 해서 해먼드는 한편에서는 統計的方法을 評價하여 勞動者의 物質的條件의 改善을 認定하면서 他面에서는 精神的側面에서의 苦惱를 強調했던 것이다. 즉 해먼드의 初期의 著作에서 展開된 強力한 悲觀論은 1930年代의 後期の 著作⁽⁴³⁾에서는 強調點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먼드의 讓步 또는 妥協이 그 後 一般史家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教科書에서 通說로서 利用되어 多大한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論議의 最終的인 解決이 될수는 없었다. 그 後 比較的 沈默을 維持하고 있던 이 論爭은 第2次大戰後 애슈톤(T.S.Ashton)의 主張을 契機로해서 새로운 展開를 보게 되는 것이다.

III. 最近의 論爭

1. 애슈톤의 問題提起와 樂觀論

第2次大戰後 産業革命이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미친 影響에 관한 論議는 名著『産業革命』(The Industrial Revolution, 1948)의 著者 애슈톤에 의해서 提起되었다. 그는 이 問題에 관한 一連의 理論的 및 實證的 研究를 통해서 強力한 樂觀論을 主張함으로써 悲觀論에 挑戰했으며 그것을 契機로해서 이 問題에 관한 論爭은 새로운 展開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애슈톤이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처음으로 全面的으로 다룬 것은 1949年의 論文『英國勞動者의 生活水準 1790-1830年』(The Standard of Life of the Workers in England, 1790-1830)⁽⁴⁴⁾에서였다. 그는 이 論文에서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은

(42) *Ibid.*, pp. 219-20

(43) J.L. and B. Hammond, *The Age of the Chartists, 1832-1854, A Study of Discontent*, 1930; do., *The Bleak Age*, 1934.

(44) 이 論文은 元來 *Journal of Economic History*, Supplement IX, 1949에 掲載되었으나 그후 F. A. Hayek (ed.), *Capitalism and the Historians*, 1954에 收錄되었다. 本稿에서는 後者에 收錄된 論文을 利用했다.

적어도 1820年以後에는 漸次的으로 改善되었다고 主張하고 그 論據를 (1) 人口의 趨勢와 一般的經濟條件 (2) 英國의 交易條件 (3) 勞動者의 賃金및 生計費의 分析에 두고있다.

첫째로 人口의 趨勢를 보면 19世紀初期의 數 10年동안 人口가 急增하고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애슈톤은 이 時期의 人口增加의 原因으로서 出生率의 增大보다도 死亡率의 減少를 重要視하고 그것을 生活水準의 改善의 하나의 指標로 본다. 어빙슨 이時期의 人口의 急速한 增加에는 死亡率의 減少와 함께 出生率의 增加가 다같이 作用했으며 그것은 또한 人口의 年齡構成의 變化 즉 勞動年齡人口의 增加를 가져왔던 것이다. 애슈톤은 이러한 人口增加 특히 勞動年齡人口의 增加가 勞動者의 賃金を 低下시킬수 있다는 것을 指摘하면서도 同時에 다른 生産諸要素의 供給增加가 있었다고 본다. 즉 그는 不充分한 것이지만 이 時期의 國民所得推計가 生産 支出 消費가 人口보다도 急增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속에서 所得分配에서 勞動者의 所得단이 減少되었다고 볼 理由는 없다고 主張한다. 그래서 그는 19世紀 前半期の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檢討하기 위해서 이時期의 經濟的 條件을 對 佛戰爭期, 戰後의 디플레 및 再調整期 그리고 그 뒤에오는 經濟的 擴張期를 區別해서 考察하고 있다. 우선 對佛戰爭期間에는 非生産的인 莫大한 政府支出이 高水準의 雇傭을 낳았으나 生活水準은 低下했다. 食糧輸入의 困難이 限界耕作地를 擴大시키고 農業利潤과 地代를 上昇시켰지만은 食糧價格의 騰貴는 勞動者의 生計를 壓迫했다. 建築資材의 不足, 高利率, 財産稅重課는 家屋建築을 制約했고 人口增加 특히 結婚適齡期人口의 增加는 家屋需要를 增加시켜서 家屋賃貸料도 引上시켰다. 多額의 高利國債의 發行은 國債所有者數를 增加시키고 그들의 所得을 增大시켰으나 稅制의 累進率이 매우 低位였기 때문에 國債所有者의 所得은 크게 貧者의 犧牲위에서 이루어졌다. 物價의 騰貴는 賃金上昇을 훨씬 上回하고 그 格差는 企業家에게 追加利潤을 주었다. 從前부터 存在하고있던 私鑄 長期支拂 現物支給制는 戰時인플레期에 鑄貨不足이 甚해짐으로서 더욱 盛行되어 그 結果 購買力은 勞動者로부터 雇傭者에게 移轉되었다. 따라서 戰時中에는 地主, 農業者, 家屋主, 國債所有者 및 企業家등에의 全般的인 所得의 移轉이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勞動者의 經濟的地位는 惡化되었던 것이다. 戰後 5~6年의 再調整期에도 若干 好轉되었다고는 해도 勞動者의 地位가 바로 改善되지는 못했다. 地主는 穀物法에 의해서 穀價低落을 沮止할수 있었고 家屋賃貸料는 如前히 高水準에 머물렀으며 利率率의 低下는 僅少한 것이었다. 賃金은 利潤率만큼 크게 低下하지는 않았으나 政府支出의 削減, 通貨收縮, 銀行破産, 長期投資의 不振이 經濟活動을 弛緩시켰으며 物價下落보다 緩慢한 賃金低下에서오는 勞動者의 利得은 高水準의 失業에 의해서 相殺되었다. 따라서 戰後의 디플레期에도 勞動者의 條件이 크게 改善되지

는 못했으며 그의 뚜렷한 改善이 이루어지는 것은 1821年 以後인 것이다. 즉 金本位制의 回復과 貨幣價値의 '安定, 多量의 銀·銅貨의 流通과 賃金支拂의 便宜增大, 稅制改革, 一連의 借換에 의한 戰時國債負擔의 輕減, 戰時物資不足의 解消, 建築資材의 供給增大 및 低利子率에 의한 工場 및 住宅建設의 促進, 物價低落과 實質生活費의 輕減 등 이들은 모두가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向上과 勞動條件의 改善에 有利하게 作用했던 것이다.⁽⁴⁵⁾

다음에 애슈톤은 交易條件을 生活水準의 檢討에 適用하고 있다. 産業革命期를 通해서 英國의 輸出品이 外國商品을 購買할 수 있는 힘은 減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純交易條件의 不利한 움직임은 輸出産業從事者의 貨幣收入을 減少시킨다던가 또는 輸入商品費用의 上昇을 招來할 것이므로 다른 條件이 不變인 限 그것은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低下시키게 된다. 애슈톤은 임라(Albert H. Imlah)의 指數를 利用해서 다음과 같은 表1을 提示하고 있다.⁽⁴⁶⁾ 그에 의하면 1803—1834年에 輸出商品價格은 繼續의 由로 低下하고 있는데 輸入商品價格은 많은 變動을 하면서도 1821年以後에야 徐徐히 低下하고 있다.

表 1 輸出入價格 및 交易條件(1829年=100)

年	輸出價格指數	輸入價格指數	純交易條件	所得交易條件
1798	264	176	150	51
1799	252	183	138	56
1800	253	183	138	57
1801	255	189	135	60
1802	280	150	187	85
1803	281	164	171	63
1804	262.5	172	153	62
1805	255	178	143	60
1806	247	164	151	70
1807	248	167	148	62
1808	237.5	159	149	65
1809	220	193	114	68
1810	221	188	118	72
1811	227	155	146	59
1812	220	173	127	67
1813	—	—	—	—
1814	208	194	107	64
1815	187.5	172	109	84
1816	183	148	124	78
1817	162.5	160	102	73

(45) F.A. Hayek (ed.), *Capitalism and the Historians*, pp.131-6.

(46) *Ibid.*, p.138.

1818	170	178	96	73
1819	164	148	111	66
1820	148	136	109	75
1821	141	120	117.5	86
1822	131	119	110	87
1823	127	118	108	84
1824	123	112	110	96
1825	128	137	93	80
1826	120	108	111	81
1827	111	107	104	97
1828	109	103	106	100
1829	100	100	100	100
1830	98	98	100	109
1831	95	102	93	102
1832	87.5	96	91	106
1833	89	104	85	107
1834	87.5	107	82	108
1835	94	114	82	116
1836	98	120	82	124

交易條件指數는 短期間의 變動을 보이면서도 1798 年の 150 에서 1836 年の 82 에 이르기까지 繼續的으로 低落하고 있다. 그런데 輸出商品의 物價指數의 內容을 보면 1814—29 年에 綿製品價格은 100 에서 46 으로 暴落하고 있는데 對해서 餘他工業製品의 輸出價格은 輸入商品價格에 比해서 그렇게 큰 低下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英國의 交易條件惡化의 原因은 綿製品價格의 暴落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綿製品價格低下의 原因으로는 란카셔(Lancashire)의 綿工業이 歐美市場을 위한 모스린(muslin) 등 高級品生産에서 印度 및 極東市場을 위한 低廉한 캐리코(calicoes) 生産으로 轉換했다는 것과 機械生産의 普及 등 技術革新 및 利子率의 低下와 交通機關의 改良 등 經濟的 條件의 進歩가 生産費를 節減하는 效果를 가져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경우에 비록 單位當 勞動費用은 크게 低下해도 勞動者의 賃金이 그에 對應해서 低下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交易條件의 下向傾向은 國民全體에게나 또는 賃金勞動者에게 대해서 經濟條件의 惡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認識에서 애슈튼은 交易條件指數는 商品의 性質과 技術의 變化가 惹起될 수 있는 長期의 分析에는 別로 價値가 없으며 短期分析에 利用될 수 있을 뿐이라고 指摘하면서 短期의 分析에서도 指數의 下向傾向을 만드시 不幸의 徵兆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主張한다. 價格만을 가지고 國際貿易에서 얻는 利益을 測定할 수는 없다. 價格과 關連을 가지는 生計費만이 아니라 雇傭機會도 勞動者의 福祉의 程度를 決定한다. 輸出에 의해서 稼得된 所得은 雇傭을 提供하고 追加所得을 創出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所得이 얼마만큼 輸入商品購入에 支

出되느냐는 輸入商品價格에 依存한다. 거기에서 애슈톤은 國際貿易의 社會的効果의 보다 좋은 測定方法은 所得交易條件(輸出價值指數/輸入價格指數)을 算出하는 것이라고 하는 도랜스(G.C. Dorrance)의 定式에 임라의 指數를 適用해서 所得交易條件指數를 算出하고 있다.(前掲表參照). 그에 의하면 該指數는 對佛戰爭期에는 거이 不變이고 1815년에 急上昇했으나 1816-19年の 不況期에 低下했다가 1820年以後에는 1825-26年 및 1831年の 不況期를 除外해서 顯著히 上昇하고 있다. 人口의 趨勢 및 全般的 經濟的 條件의 分析에서와 같이 애슈톤은 所得交易條件分析에서도 1820年代와 30年代는 貿易所得의 增加와 輸入商品購買力의 增大가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改善시켰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마지막으로 애슈톤은 賃金 및 生計費를 分析한다. 위에서 檢討한 人口 및 交易條件의 움직임이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檢討하는 間接的인 方法이라고 한다면 賃金 및 生計費의 分析은 直接的인 方法이라고 할 것이다. 클래팸이 悲觀論을 批判하고 強力的한 樂觀論을 主張한 根據도 바로 이러한 方法에 있었다. 즉 클래팸은 19世紀中葉을 1790年과 比較해서 綿手織工과 같은 斜陽勞動者를 除外하면 工業勞動者一般의 賃金은 40%나 上昇하고 있는데 反해서 生計費는 戰時的 騰貴를 除外하면 漸次 低落해서 1840년에는 21%의 上昇에 不過하고 1850년에는 對佛戰前보다 17%나 下落하고 있으므로 實質賃金은 1840年까지의 50年間に 16% 그리고 1850年까지의 60年間に 70%나 上昇했다는 것 그리고 農業勞動者의 實質賃金도 이 期間에 各各 22%와 60%의 上昇을 보였다는 것을 指摘함으로써 그것이 그의 樂觀論의 主要한 論據가 되었던 것이다.⁽⁴⁸⁾ 클래팸의 賃金 및 生計費에 관한 統計數字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불리(A.L. Bowley)⁽⁴⁹⁾ 및 우드(G.H. Wood)⁽⁵⁰⁾의 賃金指數와 실버링(N.J. Silberling)의 生計費指數⁽⁵¹⁾에 依據하고 있지만 애슈톤은 클래팸이 이들 指數를 無批判的으로 利用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그들의 限界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애슈톤은 보울리와 우드의 賃金統計는 앞으로 보다 많은 資料의 發見과 分析을 통해서 賃金率만이 아니라 實收入, 勞動時間, 家屋賃貸料에 관한 實情이 밝혀져야 하겠지마는 그것은 앞으로 重大한 修正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指摘함으로써 그의 有用性을 일단 認定하면서도 그것이 一定한 限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47) *Ibid.*, pp. 136-143.

(48) 이점에 관해서는 Clapham, *op. cit.*, p. 128, pp. 548-562 參照.

(49) A.L. Bowley, *Wages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Nineteenth Century*, 1900.

(50) G.H. Wood, "The Course of Average Wages between 1790 and 1860." *Economic Journal*, IX.

(51) N.J. Silberling, "British Prices and Business Cycles, 1779-1850," *Review of Economic Statistics*, V, 223-61

없다고 본다. 특히 그는 실버링의 生計費指數에는 많은 缺陷이 있다고해서 다음과같이 批判하고 있다. 첫째로 실버링의 生計費指數는 消費者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15 品目の 都賣物價를 基礎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品目에는 消費財가 아닌 原料가 包含되고 있으며 그들 原料의 都賣價格으로 製品의 小賣價格을 測定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小賣價格이 都賣物價에 對應해서 敏感하게 變動했다고 볼수없으므로 그것이 現實의 生計費의 變動을 바로 反映하고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실버링의 物價에는 關稅가 除去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實際에는 輸入品の 價格의 큰 部分을 關稅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실버링의 15 品目選定이 不當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勞動者의 食卓에는 適當한두번 밖에 오르지 않은 肉類가 包含되고 있는데 日常 많이 消費되는 감자라던가 酒類 그리고 家計負擔에서 적지않은 部分을 차지하는 家屋賃貸料등이 包含되지 않으므로서 實生計費가 正當히 反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點에서 各品目에 보다 適切한 加重值를 준 길보이(E. Gilboy)의 物價指數⁽⁵²⁾도 勞動者가 아니라 公共機關에서 支拂한 價格이므로 참다운 小賣物價는 아니다. 그위에 그것은 주로 런던市場의 物價이므로 食糧價格의 地方的 偏差가 있었던 當時에는 그 指數를 가지고 一般化할수는 없다. 賃金の 地方差 뿐만아니라 小賣物價와 食事內容의 地方差도 나타나고 있던 當時에있어서 런던을 中心으로 한 統計만으로는 不充分하다. 이러한 限界는 “典型的이고 正常的으로 就業하고 있는 런던의 職工이 慣習적으로 購買하는 諸商品에 對한 購買力”을 測定한 턱커(R.S. Tucker)의 生計費指數⁽⁵³⁾에서도 指摘될수 있다. 그러나 그는 消費支出의 時間的 變差를 考慮해서 勞動者의 消費品으로서 新品目이 普及되던 그것을 生計費計算에 追加하고 各品目間의 加重值를 調整하고 있는데 애슈톤은 이 點에서 時間이 經過됨에 따라서 勞動者의 消費品目이 多樣化되고 그러한 勞動者의 消費選擇範圍의 擴大와 比較的 高價한 商品의 日用品化야말로 生活水準上昇의 하나의 要因이었다고 主張한다. 그래서 애슈톤은 코린 클러크(Colin Clark)가 턱커의 指數에 依據해서 勞動者의 平均實質所得이 “17 世紀의 相當히 높은 水準에서 19 世紀初의 아세아의 水準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主張을 論駁해서 아세아 生活水準에는 17 世紀의 런던의 職工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紅茶라던가 雪糕 其他의 아세아의 產品등이 包含되고 있었다고 指摘함으로써 19 世紀初의 勞動者의 消費生活가 多樣化되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生活水準의 改善의 指標가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애슈톤은 時間과 空間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두 集團의 福祉를 充分히 比較說明할 수

(52) E.W. Gilboy, *Wages in Eighteenth Century England*, 1934.

(53) R.S. Tucker, “Real Wages of Artisan in London 1729-1935.”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XXXI, pp.73-84).

있는 指數는 存在하지 않으며 나라서 서로 內容이 다른 食事에서 얻어지는 滿足度를 比較할수도 없다고 主張하면서 한편에서 18世紀前半에는 勞動者의 剩餘所得에 對應한 商品選擇範圍는 좁았기 때문에 勞動者들로 하여금 飲酒怠惰에 빠지게 했었는데 對해서 18世紀後半에는 商品選擇範圍가 擴大되고 對佛戰爭後에는 새로운 旅行및 教育機會가 열렸다고 主張함으로써 18世紀後半以後에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어떻게 애슈톤은 勞動者의 生計水準의 變化를 測定하기 위해서 作成된 從來의 여러가지 統計數字를 全面的으로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우리는 都賣物價및 公共機關이 支拂한 價格指數를 가지고 實質賃金의 變化를 測定할수는 없다. 한 地域의 物價資料를 다른 地域의 賃金資料에 適用시킬수는 없다. 우리는 그사이에 消費되는 商品의 性質과 種類뿐만 아니라 人間의 必要라던가 欲望까지도 變化할수 있는 長期間에 걸친 統計表를 安全하게 作成할 수는 없다. 우리는 單一指數가 아니라 小賣物價에서 抽出되고 短期間에 限定되고 單一地域및 그 地域內的 單一社會 또는 職業集團에 關連되는 많은 指數가 必要하다”(54) 이러한 滿足할만한 統計數字의 作成은 앞으로의 課題로서 提示되는 것이지만 애슈톤은 위에서의 提言의 實踐의인 試圖로서 工場制의 요람地인 맨체스터地區의 主要食料費指數를 그들 食料品의 小賣物價를 基礎로해서 作成함으로써 1791—1831年의 勞動者의 生計費變動을 다음의 表 2-1, 2-2 및 2-3(55)에서 提示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食料品價格은 1800—1801年의 飢饉後에 低落했다가 계속 騰貴해서 1812年에 피크에 달하고 그 후 1820年頃까지 低落했다가 그 후 10年동안 또다시 騰貴했다. 1831年의 食料品費는 1821年에 比해서 約 15%의 上昇을 보이고 있다. 거기서 애슈톤은 生活水準의 改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貨幣賃金의 上昇이나 또는 이 指數에 包含되고 있지 않은 其他品目的 價格低落에 基因한 것이지만 一般的으로 勞動者의 生活水準은 兪豐年에 따라서 크게 變動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애슈톤은 産業革命이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미친 影響으로서 다음과 같이 一般的인 結論을 내고있다. 工場制度의 하나의 功績은 그것이 雇傭을 規則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消費를 보다 安定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1790—1830年에 工場生産은 急增했다. 그 結果 大多數의 사람들은 生産者로서 그리고 消費者로서 惠澤을 받게 되었다. 纖維價格의 低下는 衣類價格을 低下시켰다. 制服이라던가 軍靴의 政府發注는 그에 關連된 새로운 工業을 出現시켰으며 戰後에는 그의 生産品은 職工들에게 消費되었다. 多様な 商品이 勞動者의 消費對象이 되게 되었으며 1820年以後에는 紅茶, 커피, 雪

(54) Hayek, *op. cit.*, p. 152.

(55) *Ibid.*, pp. 153, 155, 156.

表 2-1 올담(OLDHAM)에서의 食糧費指數(1791=100)

年	오오트밀	小麥粉	감자	牛肉	羊肉	베이컨	버터	치이즈	總食糧費
1791(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792(봄)	105	90	85	100	100	100	100	60	94
1793(가을)	126	102	154	80	100	100	106	90	113
1794	---	---	---	---	---	---	---	---	---
1795(1 月)	121	110	154	110	110	94	112	100	117
1795(5 6月)	132	151	185	120	120	106	112	110	138
1796	---	---	---	---	---	---	---	---	---
1797	84	82	100	130	130	106	112	130	98
1798	---	---	---	---	---	---	---	---	---
1799(봄)	103	73	85	100	100	88	112	110	92
1800(5 月)	316	245	309	180	180	131	175	200	249
1801(1 月)	290	270	309	160	160	150	188	180	253
1801(10月)	112	122	92	160	170	150	125	140	124
1802(1 月)	126	135	92	176	180	138	115	132	133
1803(1 月)	100	116	123	160	160	138	138	132	123
1804(1 月)	142	114	154	160	160	124	162	154	139
1805	---	---	---	---	---	---	---	---	---
1806(1 月)	153	141	115	140	140	100	144	154	139
1807(1 月)	---	---	---	---	---	---	---	---	---
1808(1 月)	153	133	185	140	140	112	175	140	148
1809(1 月)	163	176	123	154	154	112	175	170	158

表 2-2 맨체스터 및 其他織物都市에서의 食糧費指數(1810年=100)

年	오오트밀	小麥粉	감자	上等牛肉	下等牛肉	베이컨	버터	치이즈	食糧費指數
18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11	100	91	100	100	100	82	112	100	97
1812	150	127	165	100	100	91	108	100	129
1813	130	111	120	106	108	100	119	106	116
1814	93	76	110	112	117	100	119	100	96
1815	87	69	110	100	108	95	112	100	91
1816	83	80	110	94	92	73	85	79	86
1817	127	120	130	94	92	64	85	79	111
1818	107	91	135	100	100	91	108	94	97
1819	90	73	130	100	100	91	92	94	86

表 2-3 맨체스터에서의 食糧費指數(1821年=100)

年	오오트밀	小麥粉	감자	上等牛肉	下等牛肉	豚肉	베이컨	치이즈	食糧費指數
18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22	94	117	79	100	117	96	115	95	102

1823	100	92	88	100	108	135	112	121	101
1824	116	115	141	115	117	135	127	126	122
1825	116	119	106	125	158	135	138	137	120
1826	122	112	172	125	158	130	115	137	130
1827	128	112	84	120	133	139	115	147	119
1828	119	119	100	130	133	130	123	132	120
1829	106	127	115	120	125	130	100	132	118
1830	112	119	106	110	100	113	115	105	112
1831	112	115	110	120	117	122	123	116	115

糖 등의 價格이 大幅 低落했다. 勞動組合, 友愛組合, 貯蓄銀行, 大衆新聞 및 판프렐, 學校, 非國敎教會 등 이들 모두가 單純한 生存水準보다 훨씬 높은 生活을 하는 大階級이 存在하고 있다는 證左이다. 물론 非熟練 또는 半熟練 勞動者 大衆——특히 季節的으로 雇傭되는 農業 勞動者 및 手職工——이 存在하고 있었고 그들의 所得은 거의 全部가 生活必需品 購入費에 充當되었으며 그 價格은 叙上한마와 같이 高水準에 머무르고 있었다. 經濟的 進步의 惠澤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 惠澤으로부터 排除된 사람보다도 多數였고 또한 그 數는 着實히 增加하고 있었다.⁽⁵⁶⁾

叙上한 바와같이 애슈톤은 產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評價하는 指標로서 賃金 및 生計費指數의 重要性을 是認하면서도 그에 관한 資料의 缺如 그리고 缺如된 資料에 立脚해서 作成된 從來의 諸指數를 批判하면서 스스로 그에 代身하는 指數를 提示하고 있으나 그것도 食料品費指數이며 實質賃金指數와의 關連에서 檢討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애슈톤 自身도 그의 樂觀論의 基礎를 이들 指數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 統計가 가지는 限界를 認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當時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主張함에 있어서는 이들 統計가 提示하는 範圍를 벗어나서 當時의 勞動者의 “消費品目 選擇範圍의 擴大”라는 側面을 主觀的으로 強調하고 있다. 즉 具體的인 消費財品目 選擇範圍의 擴大 그리고 高級品의 大衆化를 勞動者의 生活水準 向上의 重要한 指標로 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側面을 上記論文에서는 하나의 假說로서 提示했을 뿐 具體的인 分析을 加하지는 않았으나 1955年에 그는 이러한 假說을 18世紀에 관해서 實證的으로 分析檢討함으로서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는 것을 主張한 論文을 發表했다. 『18世紀 英國에 있어서의 快樂度의 變化』(Changes in Standards of Comfort in Eighteenth-century England)⁽⁵⁷⁾가 그것이다.

(56) *Ibid.*, pp. 157-9.

(57) T.S. Ashton, "Changes in Standards of Comfort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Raleigh Lecture on History,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Vol. XLI, 1955.

이 논문에서 애슈톤은 18 세기에 있어서의 生活水準의 變化를 穀物과 肉類等 生活必需品와 紅茶, 雪糖, 煙草等 嗜好品の 消費內容의 變化를 통해서 檢討하고 結論적으로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18 世紀初보다도 18 世紀末에 더 높아졌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穀物消費內容의 變化를 보자. 애슈톤은 18 世紀 以前부터 이미 富裕階級은 小麥粉 빵을 常食으로하고 있었지만은 地方的 偏差는 있으나 英格蘭의 大部分에 있어서는 小麥, 大麥 및 라이麥粉의 混合빵이 常食이었다고 前提를하고 그것이 18 世紀가 經過되는 過程에서 少麥消費가 增加했다고 指摘한다. 1715--55 年의 一般的 豐作期에 農業慣行이 變化되고 少麥生産이 增加되었던 것이다. 애슈톤은 애슐리(W.J. Ashley)의 計算을 引用 하면서 1696 年에는 英格蘭의 빵食에서 小麥粉빵이 5 分の 2 를 차지하고 있던것이 1764 年에는 5 分の 3 으로 增加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18 世紀 後半期가 되면 長年의 兇作이 繼續되고 하면 人口는 增加하고 있으므로 輸入小麥에의 依存度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小麥의 常食化傾向은 弱化되지 않고있다. 90 年代의 饑饉期에는 小麥, 라이麥, 감자 및 豆類混合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一般消費者의 이러한 混合빵에 對한 嫌惡感은 컸었고 當時에는 貧民의 強制勞動所에서마저 小麥빵이 常食이 되고있는 程度이다. 1767 年에 이미 아더 양(Arthur Young)이 라이麥 및 大麥빵은 貧困한 코테이저(cottagers)에 의해서도 恐怖의 눈으로 보아졌고 18 世紀末에는 라이麥의 19 倍나되는 小麥이 栽培되고 있다고 記述한 것을 애슈톤은 注目한다. 이러한 小麥빵의 普及은 從來에 土壤이라던가 氣候關係로 그것이 常食이 되지 못했던 英格蘭의 西北地方에도 顯著하다. 이렇게해서 英國에서의 穀物消費는 低廉한 穀物로 부터 비싼 穀物⁽⁵⁸⁾로 轉換되어 갔다. 穀物消費內容의 變化를 檢討한 애슈톤은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비록 낡은 敎科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것과 같이 英國人이 土地로 부터 追放되어 工場에 投入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그들로하여금 小麥빵을 利用하도록 強要하지는 않았다. 만약에 말더스의인 壓迫이 深刻하게 있었고 勞動者의 生活條件이 惡化되고 있었다면은 비싼 穀物로부터 低質의 廉價한 穀物에의 轉換이 있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19 世紀初에는 人口가 急增하고 있었는데 小麥을 固執할수가 있었다. 穀物法撤廢의 鬭爭은 小麥粉으로 만든 빵을 常食으로 하고 그 價格을 低廉하게 하기위한 鬭爭이었다.”⁽⁵⁹⁾

다음에 肉類를 보자. 肉類販賣에 관한 統計는 런던의 肉類市場 스미드 필드(Smith

(58) 1757 年의 Northamptonshire의 數字에 의하면 1 S.에 相當한 빵의 重量은 大麥빵 14 파운드 6 온스, 라이빵 13파운드 11온스, 小麥빵 7파운드 5온스 이며 이러한 格差는 時間이 經過됨에 따라 擴大되어 가고 있다. *Ibid.*, p.174.

(59) *Ibid.*, pp.174-5.

Field)의 徵稅人이 作成한 數字이지마는 그것은 食肉의 重量이 아니라 家畜의 頭數이므로 飼育法의 改良으로 家畜重量⁽⁶⁰⁾이 커지면 食肉消費가 增加해도 家畜數는 增加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또한 런던市場의 數字를 英國全體를 같은 程度로 代表한다고 볼수도 없다. 애슈톤은 이러한 缺點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餘他補助史料와 함께 食肉消費의 變化를 아는데에 利用될수있다고 主張하면서 18世紀에 있어서의 그의 變化의 過程을 展望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740—69년에는 兎作에 의한 飼料不足과 疾病등에 의해서 家畜飼育數가 減少하여 食肉및 酪農製品價格이 크게 騰貴했었다. 그러나 1770年代와 80年代初에는 良好한 日氣條件뿐만 아니라 工業發展에 따르는 羊毛, 皮革및 獸脂등의 需要增大에 刺戟되어 家畜飼育이 增加되고 그 結果 家畜賣却數의 增大, 따라서 肉類供給의 增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主로 日氣上의 惡條件에 의해서 80年代 後半에 스미드 필드의 家畜販賣數는 減少하고 있지만은 90年代初가 되면 그것은 또다시 增加하고 있다. 애슈톤은 結論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日氣의 惡條件이 어느 時期에 食肉과 酪農製品의 不足을 招來했다고고는 하나 스미드 필드에서 販賣된 牛·羊의 頭數는 1800년에는 1789년에 比해서 各各 34% 와 21% 높았다. 食肉이 90年代의 食事에서 다른 時期 보다도 重要性이 적었다고 생각할 아무런 理由도 없는 것이다.”⁽⁶¹⁾ 또한 애슈톤은 食事의 改善과 關連해서 18世紀 後半에 石炭採掘과 交通手段의 發達로 말미아마 燃料로서의 低廉한 石炭이 全國의으로 供給되고 高價한 木炭에 代替됨으로서 勞動者로 하여금 溫食과 野菜攝取 그리고 暖房을 보다 容易하게 하고 또한 특히 交通手段의 改良에 의해서 果實의 常食化가 進展되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⁶²⁾

마지막으로 애슈톤은 嗜好食品의 消費傾向을 檢討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消費稅 및 關稅賦課資料가 있으므로 必需食品보다도 確實한 것을 알수 있다. 18世紀前半의 穀物生産의 大增加(低穀價)와 低稅金의 結果로서 진과 위스키등의 酒類 供給이 크게 增加했다.⁽⁶³⁾ 1743年の 酒類消費量은 900萬가론에 達하고 있다. 英國의 勞動者는 農業繁榮의 惠澤을 진의 需要增大라는 形態로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反面 그것은 道德的墮落과 穀物로 生産되는 다른 物品價格의 騰貴라는 不利益을 가져왔다. 이러한 進時代는 50年代의 課稅率引上和 穀物不足의 增大에 의해서 進價格이 3倍나 騰貴됨으로서 終熄되었다.

(60) 18世紀의 經過中에 家畜의 重量은 2-3倍나 增加했다. T.S.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1955, pp.51-2.

(61) Ashton, “*Comfort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pp.174-5.

(62) *Ibid.*, pp.177-8.

(63) 스페인繼承戰爭의 末期부터 18世紀中葉에 이르기까지 國產및 輸入火酒의 消費量은 年 200萬가론에서 800萬가론으로 增加하고 있다, *Ibid.*, p.179.

그 결과 그 후 30年間 酒類의 年販賣量은 400~500萬가론 程度였고 1783年의 饑饉時에는 300萬가론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80年代中葉에는 關稅引下에 따르는 外國產酒類의 輸入增加에 의해서 그의 消費量도 急增해서 40年代의 數量을 上廻하게 되었다. 그래서 1800년에는 兪年이면서도 酒類消費量은 그 以前의 어느 水準보다도 높았다. 한편 麥酒의 生産은 1703年에서 40年代初까지는 低下傾向이던 것이 그後 특히 70年代中葉부터 世紀末까지 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紅茶消費量도 18世紀中葉以後에 增加하고 있다. 1769年에 紅茶에 對한 內國稅가 撤廢됨으로서 東印度會社가 販賣하는 紅茶量이 急增했고 특히 1784年에 紅茶關稅가 119%에서 12.5%로 引下됨으로서 紅茶輸入量은 2~3倍나 增加했으며 “1795年 및 96年の 課稅率引上도 紅茶에 의한 英格蘭드 征服을 抑制하지는 못했다.”⁽⁶⁴⁾ 雪糖需要도 增加해서 그의 消費量은 18世紀初에는 1人當 4파운드였던 것이 世紀末에는 13파운드로 增加하고 있다. 애슈톤은 勞動者의 煙草消費도 1790年에서 1800年에 이르는 사이에 關稅가 賦課된 輸入煙草量은 900萬파운드에서 1180萬파운드로 그리고 消費稅가 賦課된 國內產煙草量은 700萬파운드에서 1130萬파운드로 增加하고 있다는 事實로서 勞動者의 喫煙量은 적어도 減少하지는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食料品 以外の 日常品의 消費內容을 보면 비누와 초의 生産量과 消費量은 18世紀의 90年代에는 1714年에 比해서 多같이 2倍나 增加하고 있다. 그것으로서 바로 勞動者의 집이 清潔해지고 밝아졌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그의 增加率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애슈톤은 注目하고 있다. 또한 18世紀末이 되면 綿工業의 새로운 發達로 말미아마 毛, 絹, 麻에 代身해서 廉價한 綿織物이 普及되어 衣料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고 그 結果로서 애슈톤은 “生産者로서와 마찬가지로 消費者로서 英國의 勞動者가 利益을 얻었다는 것을 장황하게 말할 必要가 없다”⁽⁶⁵⁾고 말하고 있다. 家屋에 관한 詳細한 資料는 없으나 애슈톤은 建築資材에의 消費稅, 그의 生産 및 輸入量 그리고 金利의 움직임에 관한 資料를 利用해서 勞動者의 家屋條件을 檢討하고 있으며 특히 그는 家屋建築은 低金利의 時期(平和時代)에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6~7年間 建築붐이 繼續되었지만은 1793年의 戰爭勃發後에는 指數는 下降하여 建築業에 不況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世紀末까지 回復의 徵候가 없었다. 建築資材의 限定된 供給의 大部分은 바락크라던가 工場建設에 利用되었으며 勞動者의 住宅建設의 余裕는 없었다. 따라서 이點에서 애슈톤은 悲觀論을 肯定하고 있는 것이다.

(64) *Ibid.*, p.181.

(65) *Ibid.*, p.184.

叙上한 애슈톤의 主張을 綜合的으로 볼때 그는 18世紀에 英國의 勞動者의 消費生活이 時期的으로는 壓迫을 받으면서 變動하고 있으나 大體的으로는 改善의 方向에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時期的으로 나타난 勞動者의 消費生活에 對한 壓迫도 産業革命이라고 하는 經濟發展過程이 낳은 結果라기 보다는 戰爭이라던가 兇作이라고하는 經濟外的要因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는 18世紀 前半期의 兇作은 饑餓의인 影響을 주었으나 後半期의 그의 影響은 훨씬 緩和된 것이었다고 主張하고 그만큼 勞動者階級の 漸增하는 部分의 賃金이 上昇하고 그것이 그들의 消費水準을 上昇시켰다고 指摘하고 있다. 애슈톤은 18世紀末에 勞動者階級の 生活水準이 18世紀初에 比해서 改善되었는가 또는 惡化되었는가 自問하면서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兩期間에 生活水準과 生活樣式에 重要한 變化가 일어났다. 大部分의 사람들이 아직도 農村에 居住하고 있다고 해도 많은 部分의 사람들이 人口가 密集한 都市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食事도 變化했으며 交通手段의 發達이 地域差를 減少시켰고 食料品貯藏施設의 改革은 物價變動의 回數와 振幅을 적게했다. 必需品價格은 크게 上昇했으나 消費品의 選擇範圍는 擴大되었다. 熟練勞動者의 收入은 크게 增加하고 非熟練勞動者의 收入은 적은 程度로 增加했다. 生活水準에 影響을 준 諸力이 모두 有利한 것은 아니었고 成就된 進歩에 관한 見解差의 余地는 있다. 그러나 新鮮한 空氣의 肉體에 미치는 惠澤과 貧困의 道德에 미치는 効力을 過大 評價하는 사람들만이 小깃트 時代의 勞動者이기 보다 말바라(Marlborough)라던가 월폴(Walpole)時代의 勞動者인 편이 좋다는 것을 確信을 가지고 말할수있을 것이다.”⁽⁶⁶⁾

2. 호브스보움의 悲觀論

클래팜—애슈톤의 樂觀論에 對해서 悲觀論을 主張한 것은 런던 大學의 호브스보움이 있다. 그의 悲觀論은 그러나 傳統的인 悲觀論者인 토인비와 특히 해먼드夫妻와 같이 質的方法에 依據해서가 아니라 樂觀論者들이 利用하는 計量的方法에 依據해서 提示되고 있다는 데에 特徵이 있으며 同一한 方法을 利用해서 相反되는 見解에 到達하고 있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事實 그의 論文『英國의 生活水準 1790-1850年』(The British Standard of Living 1790-1850)⁽⁶⁷⁾에서 그는 애슈톤이 利用한 것과같이 統計數字를 利用해서 클래팜—애슈톤에 對抗하는 悲觀論을 主張하고 해먼드夫妻—토인비—맑스—말더스—리카도 등의 傳統的理論의 再興을 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66) *Ibid.*, p. 187.

(67) E.J. Hobsbawm, “The British Standard of Living 179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S.S. Vol. X, No. 1, August, 1957.

우선 호브스보웬은 人口急增의 主要因인 死亡率의 減少가 만드시 生活水準 向上의 反映 일수는 없다고 主張하고 前工業經濟에서 나타났던 周期的인 困窮이라던가 饑饉에 代身해서 工業經濟에서는 食糧의 보다 規則的인 供給이 이루어지면 비록 消費水準은 以前보다 低下되어도 死亡率은 減少될 수 있다고 指摘한다. 그러나 그는 人口增加를 上廻하는 生産增加가 究極的으로 人間の 物質的 福祉向上을 가져온다는 것을 是認하면서도 生活水準이 언제나 改善되지 않으면 안될 理由는 없다고 말하고 追加的 資源의 配分方法에 따라서 그것이 改善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指摘한다. 호브스보웬에 의하면 產業革命의 初期에는 國民所得의 보다 公平한 分配機構는 없었다. 또한 能率的인 投資機構도 없었기 때문에 理論的으로 必要한 以上の 資源의 過重한 轉換을 消費로부터 要求했다. 英國에서는 蓄積資本은 潤澤했으나 그것이 만드시 有效하게 工業으로 投資된 것은 아니므로 그만큼 大衆에 負擔이 加重되었고 一般生活水準의 低下는 거의 不可避했다. 또한 그는 英國에서는 人口의 自然增加, 農民移民등에 의해서 勞動力이 多量으로 存在했었기 때문에 限定된 勞働者集團 以外의 大多數의 勞働者의 實質賃金이 上昇하는 것을 期待하기는 困難했다. 호브스보웬은 工業化와 都市化는 그것이 工業賃金を 農村賃金 보다 높이고 都市消費水準을 農村消費水準보다 높이므로써 언제나 自動的으로 生活水準을 改善한다고 主張될런지도 모르지마는 ① 一部分의 勞働者의 所得이 아니라 全勞働者의 所得을 問題로 하고 ② 大陸에서와는 달리 死亡率이라던가 文盲率의 減少가 만드시 農村에서 보다도 都市에서 顯著하지는 않았으며 그리고 ③ 都市와 農村, 工業과 前工業의 生活間의 質的差異를 改善과 惡化의 量的差異로 본다는 것을 警戒해야 함으로 그러한 主張은 正當性이 없다고 指摘하고 事實을 通해서 勞働者의 生活水準을 分析하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樂觀論者들의 見解를 批判하기 위해서 그들이 利用한 統計數字를 批判한다. 첫째로 클레팸의 樂觀論은 叙上한 바와 같이 보울리와 우드의 賃金統計와 실버링의 生計費指數에 根據를 두고 있으나 이들 統計의 缺陷은 애슈튼과 같은 樂觀論者에 의해서도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 호브스보웬에 의하면 터커와 보울리의 賃金統計는 主로 熟練勞働者의 貨幣賃金에 관한 것이며, 成果拂支給 勞働者라던가 非熟練勞働者에 관한 賃金統計는 없고 失業程度는 알수 없다. 실버링의 生計費指數는 애슈튼에 의해서 이미 批判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統計를 基礎로해서 勞働者階級の 生活水準에 관해서 一般化한다는 것은 安全한 것은 못된다. 호브스보웬은 애슈튼이 이미 클레팸理論을 버리고 —이것은 別로 一般的으로 認識되고 있지는 않으나— ① 實質賃金이 上昇되었으리라는 것을 立證하기 위한 理論的論議 ② 衣食住의 改革등 物質的繁榮의 增大에 관

한 事實的 證據 ③ 實質賃金이 上昇한 勞動人口는 그렇지 못한 勞動人口 보다 多數였다는 假定에 依存해서 그의 樂觀論을 主張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오늘날 클레팜의 理論이 허물어진 以上 樂觀論을 뒷받침할 確實한 證據는 없으며 樂觀論은 基本的으로는 1839 年에 마카록크(McCulloch)가 主張한 證據에 依據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信賴할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즉 마카록크가 ① 白빵이 黑빵에 代替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提示한 數字는 粗雜하고 信賴할수 없는 것이며 ② 食肉消費增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假定한 스미드 필드市場에서 賣却되는 家畜의 重量增加도 最近의 見解로는 支持할수 없고 또한 家畜賣却頭數도 런던人口의 增加에 步調를 맞추어서 增加하지 못했으며 ③ 그가 主張하는 綿製品價格의 低落에 관해서는 그는 直接的인 證據를 提示하지 않았고 또한 감자, 酪農製品, 其他食料雜貨에 관해서는 言及이 없다. 호브스보웬은 그후의 樂觀論者들은 모두가 마카록크 以上으로 統計數字를 研究하지는 않았으며 애슈톤마저 少數의 資料에 依存하고 있다고 批判한다. 또한 호브스보웬은 오늘날의 樂觀論의 基本이라고 볼수 있는 生活條件이 改善된 勞動者數가 그렇지 못한 勞動者數보다 많다는 見解에도 資料는 不充分하다고 指摘하면서 工業勞動者의 40%는 後期에 當時水準으로서 生存水準以下の 貧困한 生活를 했고 全期間에 걸쳐서 實質賃金의 上昇에 의해서 惠澤을 받은 勞動者는 全勞動者의 15%에 不過했으며 나머지 45%는 그 中間層이었다고 主張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790—1850 年에 好條件의 勞動者層이 後期보다도 顯著하게 크고 貧困한 層이 顯著하게 컸었다고 假定하던가 또는 적어도 7分의 5의 中間層이 勞動貴族에 類似했다고 假定하는 경우만이 樂觀論은 그것이 所得構造에 관한 假定에 基礎를 두는 限 維持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것같지 않고 樂觀論을 뒷받침하는 보다많은 史料가 出現할 때까지는 그러한 主張을 할수 있는 根據는 없다. 따라서 樂觀論은 생각되는 것 만큼 強力한 史料에 基礎를 두고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에 有利한 強力한 理論의 根據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正當하다는 것이 判明될런지도 모르지마는 보다 많은 適切한 뒷받침과 論議가 이루어질때까지는 傳統의見解를 拋棄할 큰 理由는 없다. 傳統의見解를 뒷받침하는 統計資料도 存在하고 있다는 點에서 볼때 그것은 더욱 強力해지고 있는 것이다.”⁽⁶⁸⁾

이러한 批判을 提起하면서 호브스보웬은 自己의 悲觀的見解를 뒷받침하는 세가지의 積極的인 論據를 提示한다. 즉 첫째는 死亡率에 관한것, 둘째는 失業에 관한것 그리고 셋째는 消費에 관한것이다.

(68) *Ibid.*, pp. 50-51.

첫째의 死亡率에 관해서보자. 호브스보웬은 叙上한바와 같이 死亡率의 減少는 物質的 消費水準의 向上에 의해서 自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交通手段의 發達등에 의한 供給의 規則性增大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指摘하고 死亡率과 物質的 消費水準과의 直接的 相關關係에 관해서는 懷疑的이다. 호브스보웬은 英國에서는 死亡에 관해서는 比較的 正確히 記錄되고 있는데 出生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出生屈가 보다 完全해지면 그만큼 死亡率은 自動적으로 低下된다고 말하고 死亡率減少는 반드시 衛生狀態의 改善만이 아니라 戶籍記錄의 改善의 結果일 수도 있다고 指摘한다. 英國의 死亡率은 1780年代에서 1810年代에 이르기까지 一般的으로 顯著히 減少했으나 그후 1840年代에 이르기까지는 增加하고 있다. 19世紀의 10年代以後의 死亡率이 增加한 時期는 그 以前의 出生者數가 增加한 自然的結果로서 年齡構成에서 健康한 中年層의 比率이 큰 時期였다. 死亡率增大의 原因은 주로 都市의 幼兒 및 青年死亡率 增大라고 말해지고 있으나 1821-35년에 그래스코(Glasgow)에서는 30~60歲의 勞動年齡層死亡率의 顯著한 增加가 그의 原因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이 時期의 死亡率增加는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低下를 反映하는 것이라고 볼수있다고 말하고 死亡率이 顯著히 減少하는 것은 1870年代 또는 80年代 以後의 일이므로 死亡率은 생각되는만큼 生活水準의 움직임과 關連되는

表 3-1 볼튼(Bolton)에서의 失業 (1842年)

職 種	總雇傭數 (1836年)	完全 및 不完全雇傭總數(1842年)	失業比率
綿工場職工	8,124	3,063(完全就業)	60
鐵 工	2,110	1,325(不完全就業)	36
木 工	150	24	84
煉 瓦 工	120	16	87
石 工	150	50	66
裁 縫 工	500	250	50
靴 工	80	40	50

表 3-2 諸都市에서의 失業 (1841-2年)

都市名	就業適格者數	完全就業者數	不完全就業者數	失業者數
Liverpool, Vauxhall	4,814	1,841	595	2,378
Stockport	8,215	1,204	2,866	4,415
Colne	4,923	964	1,604	2,355
Bury	3,982	1,107	—	—
Oldham	19,500	9,500	5,000	5,000
Accrington(織物)	3,738	1,389	1,622	727
Wigan	4,109	981	2,572	1,563

것은 아니나 1811年—41年の 死亡率上昇은 悲觀論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호브스보웬은 그의 悲觀論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斷片的으로나마 存在하는 資料를 가지고 失業의 問題를 檢討하고 있다. 1840年代中葉以後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向上은 만드시 賃金上昇이라든가 社會的諸條件의 改善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賃金은 長期間 거이 變動이 없었다——低賃金勞動에서 高賃金勞動에의 勞動者의 上昇轉換과 특히 失業率 減少 및 雇傭의 規則性增大에 基因하는바 크다. 19世紀 前半에 있어서의 失業率은 높고 그 打擊은 큰 것이 었다. 우선 困窮의 核心을 이루는 救恤對象의 貧民은 1840年代初에 全人口의 10%에 達하고 있고 農村勞動者와 不況都市의 勞動者들도 生活水準은 貧民과 다를바 없거나 또는 그 以下였다. 앞의 表 3-1 및 3-2⁽⁶⁹⁾는 호브스보웬이 들고 있는 工業都市에서의 失業率이다. 1841—42年은 不況期라고는 하나 失業率이 매우 높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그만큼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커다란 打擊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多數의 都市에서 높은 失業率과 被救恤率 그리고 消費水準의 低下가 報告되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리버풀(Liverpool)의 한 地區에서는 1835年以後 總收入이 半減하고 食肉消費가 半減하고 빵 消費는 一定하고 오트밀消費는 倍增하고 감자 消費는 3分の 1增加했으며 類似한 購買量의 急減——맨체스터(Manchester)에서는 40% 減——은 反穀物法同盟이 調査한 都市에서는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모든 不況期에 勞動貧民의 困窮狀을 看過한 論議는 現實의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求職浮浪者數도 景氣變動과 아일랜드移民에 의해서 增加되는 傾向에 있었고 救貧法委員會의 報告에 의하면 被救恤浮浪貧民數는 1822—33년에 倍增하고 있다. 景氣變動이 失業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예는 比較的 高賃金이었던 建築工——그들에 관해서는 實質賃金의 上昇에 根據를 두는 樂觀論과 文書史料에 根據를 두는 悲觀論이 對立하고 있기는 하지만——에 관해서도 確認되고 있다. 즉 이 部門에서는 急速한 擴大期(1800—4年) 뒤에 緩慢한 擴大期(1805—14年)와 不況期(1816—19年)가 나타나고 있는데 後者의 時期에는 失業이 創出되고 있다. 景氣變動의 影響을 敏感히 받으면서 急速하게 發展하고 있던 建築部門에서는 急速한 擴大期에 팽창했던 就業者數가 擴大速度가 緩慢해져도 失業者가 發生하고 不況期에는 그것은 크게 增加된다. 특히 私企業下에서의 先驅의 工業化의 時期에는 勞動者가 景氣變動에 對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打擊도 컸던 것이다. 20年代以後의 建築業은 曇의 時期(1820—4年), 緩慢한 擴大期(1825—9年) 그리고 不況期(1830—4年)를 經驗하고 있으며 이러한 過程에서 建築工의 失業과 貧困과 不滿이 나타나고 있다. 호

(69) *Ibid.*, pp.53, 54.

호브스보웬은 職工들을 包含해서 建築工들이 1830年代初에 戰鬪的인 勞動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背景에서였다고 指摘하고 있다. 建築業에서 나타나고 있는 景氣變動에 對應한 就業狀況, 특히 失業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近代의 變革過程에 있던 모든 工業部門과 工業時代에도 殘存하고 있는 前近代의 商工業에서도 다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호브스보웬은 産業革命의 初期(1780—1811年)의 一般的 擴大는 失業을 減少시키는 傾向에 있었으나 對佛戰爭이 終結되고 平時經濟에 轉換되는 時期에는 失業問題가 尖銳化했다고 보고 1811—42年의 時期에는 實質賃金指數로는 밝혀지지 않은 非常한 失業이 經驗되었던 時期로 볼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그는 失業에 관한 自己의 主張은 樂觀論에 對해서 反論을 提起하기에는 充分하지마는 그것만으로 그에 代身해서 悲觀論을 確立시킬수 있을 만큼 確認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失業問題에 관한 一層의 論效가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로 호브스보웬은 消費의 側面을 檢討하고 있다. 消費에 관한 統計는 輸入品以外에는 全國的인 統計가 없지마는 現在 利用될수있는 史料에 의하면 1790年代 後期에서 1840年代初에 이르기까지의 數種의 食料品の 1人當 消費가 上昇한 證據는 없고 오히려 若干의 品目은 一時的으로 消費가 減少했다는 證據가 있으며 그 減少는 1840年代中葉까지 完全히 回復되지 않고있다. 그래서 호브스보웬은 消費에 관한 史料야말로 이時期의 生活水準의 低下를 主張하는 悲觀論의 確固한 根據가 될수있다고 말하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우선 애슈톤이 嗜好品으로서 檢討한, 그리고 그 全部가 輸入品인 紅茶, 雪糖 및 煙草의 消費를 檢討하고 1840年代中葉 以後에 이들 嗜好品消費가 急增하고 그 以前에는 變動을 隨伴하면서도 僅少한 增加에 不過하다는 事實로서 悲觀論을 뒷받침하는 證據로 본다. 즉 煙草는 高輸入稅로 말미암아 1810年代에 消費가 低下하고 있으나 安定的인 消費 傾向에 있고 紅茶는 數次에 걸친 短期間의 消費減少가 있으나 不況期에도 全혀 影響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消費量의 趨移가 生活水準의 指數로 보기는 어렵다. 雪糖 消費量은 不況을 가장 敏感하게 反映하여 對佛戰爭時의 피이크에서 1840年代의 피이크까지 그의 消費量은 回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嗜好品에서 보면 그것은 生活水準의 顯著的한 上昇을 反映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食肉을 보더라도 스미드 필드市場의 數字에 의하면 1801年에서 1841年에 이르는 사이에 런던의 人口指數는 100에서 202로 上昇하고 있는데 屠殺된 牛數는 146에서 176으로 上昇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호브스보웬은 이 期間에 家畜의 重量은 크게 增大하지 않았다고 보고 따라서 1804年에 이르기까지 食肉消費는 틀림없이 減少했으며 皮革

消費稅를 보더라도 1801年과 1821年의 比較에서 樂觀論이 말하는 消費上昇을 主張할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勞動者의 主食이었던 穀物과 감자의 消費를 보더라도 그들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主張할수 없다. 호브스보웬에 의하면 小麥의 生産量과 輸入量은 人口增加와 步調를 같이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1人當 小麥消費量은 18世紀末에서 1850年에 이르기까지 漸次로 低落하고 있으며 그에 거이 反比例해서 감자의 消費量이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其他의 食料品을 보면 都市의 擴大가 周邊農村의 生産地를 蠶食함으로써 牛乳와 치즈의 生産量, 따라서 消費量은 減少하고 빵食에 附隨되는 버터는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食料品消費에 관한 史料가 모두 悲觀論에 有利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 호브스보웬은 이 時期에 盛行된 粗惡食品은 悲觀論을 強化하는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빵, 오토밀, 紅茶, 牛乳, 버터, 잼등 雪糖을 除外한 大部分의 食品이 不純物이 混合된 粗惡食品이었고 그것은 그만큼 勞動者의 消費水準을 低落시키는 作用을 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그렇다고 해서 19世紀의 英國의 勞動者가 아세아의 生活水準에 있었다는 見解에 贊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産業革命以前과 그 過程을 통해서 英國人은 大陸諸國民에 比해서 높은 消費水準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問題는 他國과의 比較에서가 아니라 英國의 水準에서의 이 時期의 消費水準의 改善與否 그리고 그의 程度如何에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悲觀論의 根據로서 死亡率, 失業 그리고 消費에 관한 統計的檢討를 한 호브스보웬은 結論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1790年 또는 1800年에서 1840年代中葉에 이르기까지의 時期에는 樂觀論을 支持하는 強力한 根據는 있다. 退化의 蓋然性과 證據는 輕視될수 없다. 生活水準은 18世紀의 大部分에 걸쳐서 向上되었다는 것은 事實인 것 같다. 그러나 産業革命의 開始後 얼마있어서 生活水準의 向上이 停止되고 低下되었다는 것도 事實인것 같다. 1790年代 中葉이 그의 向上에서 下落에의 轉換點이라고 생각되며 한편 1840年代 中葉이 下落에서 上昇에의 轉換點이 었다.”⁽⁷⁰⁾ 호브스보웬은 悲觀論은 아직도 否定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研究에 의해서 提示될 史料에 의해서 그것이 否定될런지도 모르지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提示되는 史料는 現在의 그것보다도 훨씬 強力한 것이라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하아트웰의 所說

叙上한바와 같이 호브스보웬은 애슈톤의 樂觀論에 對해서 統計史料에 依據해서 悲

(70) *Ibid.*, pp.60 61.

觀論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애슈톤의 所說과 全面的으로 相反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애슈톤이 第2의 論文에서 다룬 18世紀에 있어서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向上되었다는 主張은 現在 一般的으로 是認되고 있으며 호브스보웬 自身이 18世紀를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19世紀의 前半期에 관해서는 兩者의 見解는 相反되는 것이지만 그의 論據는 만드시 共通하고 明確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兩者는 서로 論據를 달리하면서 相反되는 主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와서 호브스보웬의 悲觀的 見解에 對해서 그와 거의 同一한 根據에서 強力한 樂觀論이 옥스포드大學의 하아트웰에 의해서 提起되고 그에 對해서 相互間에 反論과 再反論이 提起됨으로서 애슈톤對 호브스보웬의 論爭은 호브스보웬對 하아트웰의 論爭으로 새로운 展開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하아트웰은 1961年의 그의 論文『英國에서의 生活水準의 上昇』⁽⁷¹⁾ (The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England, 1800-1850)에서 國民所得分析 및 消費分析과 其他諸要因의 分析을 通해서 産業革命期의 英國勞動者의 生活水準이 向上傾向에 있었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고 있다. 즉 그는 이 論文에서 “1人當 平均所得이 增大하고, 勞動者에 不利한 所得分配의 傾向이 없고, (1815年以後에는) 貨幣貨金은 一定한데 物價는 低下하고, 1人當 食糧 및 其他 消費財의 消費가 增加하고, 生活水準을 維持하고 向上시키기 위해서 政府가 經濟生活에 漸次로 干與했기 때문에 英國勞動者의 大多數의 實質貨金은 1800—1850年에 上昇했다”⁽⁷²⁾는 것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하아트웰은 우선 所得分析을 通해서 그의 樂觀論을 展開한다. 하아트웰은 經濟成長은 1人當 國民所得의 增加를 意味하고 그것은 相對的으로 같은 比率의 分配를 勞動者에게 준다면 平均的 生活水準의 上昇을 意味한다고 理論的으로 假定하고 具體的으로는 크즈네츠(S. Kuznets)에 依據해서⁽⁷³⁾ 歷史的으로 所得增加는 보다 平等한 所得分配를 隨伴했으며 딘(Phyllis Deane)에 依據해서⁽⁷⁴⁾ 英國에서는 1800-1850年에 平均實質所得은 倍增

(71) R.M. Hartwell, "The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England, 180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April 1961.

(72) *Ibid.*, p. 398.

(73) S. Kuznet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하아트웰은 理論的으로 成長의 初期段階에서는 貯蓄과 投資가 크게 擴大됨으로 不平等의 增大가 있을수있다고 보고 있다.

(74) Phyllis Deane, "Contemporary Estimates of National Income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April 1956; do.,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The Evidence of Early British National Income Estimat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uary, 1957.



하고 1830年까지에는變動을 隨伴하던서도 1人當平均所得은 이미 50% 增加했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그는 1人當 所得이 增加했다는 根據로서 英國에서의 ① 人口增加와 關連된 製造工業의 產出量增加 ② 製造工業部門所得의 增加와 그것이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增加 ③ 製造工業雇傭勞動者의 增加와 그것이 全勞動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增大라는 現象을 들면서⁽⁷⁵⁾ 이러한 것이 生活水準의 向上에 影響을 미쳤다고 指摘하고 있다. 하아트웰은 1人當 產出量의 增大를 가져오는 諸要因 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을 ① 資本形成 ② 技術進步 ③ 改善된 勞動 그리고 ④ 管理技術 이라고 指摘하고 이들 諸要因의 結合에 의해서 1760—1840年에 人口와 所得이 매우 緩慢하게 增大하던 狀態로부터 그것이 各各年 1.5%와 3%의 率로 增加한 狀態로의 變化가 나타났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 時期에 資本形成率은 確實히 增加했지마는 그것이 實質所得에 미친 影響을 알기 위해서는 貯蓄率과 資本產出比率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現在로는 알수없다. 하아트웰은 여러가지 可能性중에서 1840年頃까지는 英國에서 貯蓄率과 資本產出比率은 低位에 있었다고 假定하고 그러나 産業革命期의 技術革新=機械導入에 의해서 새로운 工業 生産施設의 生産性은 높은데 比해서 그의 費用은 大體的으로 低位에 있었기때문에 相對的으로 낮은 資本產出量比率은 實質賃金의 上昇과 矛盾되지 않았다고 본다. 機械導入에 의한 生産性增大는 理論的으로는 機械에 의한 人間勞動의 代替와 따라서 實質賃金의 上昇抑制效果를 가져온다고 생각되지만은 實際로는 이時期에 多數의 輕工業施設이 既存施設에 代替한 것이 아니라 그에 附加되었으므로 總勞動需要는 繼續해서 增加하여 技術的인 過少雇傭의 存在에도 不拘하고 人間勞動에의 機械의 代替는 平均實質賃金의 低下를 招來하지는 않았다. 反面에 機械의 導入은 一般的으로 生産費의 低下 따라서 消費財價格의 低下를 結果했기때문에 實質賃金의 上昇傾向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生産性を 增大하는데에 있어서는 有能한 企業家와 熟練勞動者의 增大가 重要한 役割을 했다. 産業革命은 技術에 있어서와 같이 産業組織에 있어서의 革命이었으며 그속에서 有能한 企業家의 管理技術과 勞動者의 熟練의 向上이 生産性的 向上에 重要한 貢獻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하아트웰은 人口法則과 土地收獲遞減法則의 結合이 賃金을 穀物價格에 따라서 生存水準에서 決定하고 따라서 地代가 增大함에 따라서 利潤은 減少되는 傾向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經濟發展을 制約했다고 하는 리카도(Ricardo)의 主張에도 不拘하고 實際에는 叙上한 生産性增加에

(75) 1782—1855년에 英國의 工業產出量의 增加率은 戰時를 除外해서 年平均 3~4%이고 人口增加率은 1.2~1.5%였다. 한편 國民所得에 對한 製造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1770年の 約 20%에서 1812년에는 25% 그리고 1831년에는 33%, 1850년에는 40%로 增大했고 1841年과 51年에 就業人口의 約 1/3은 製造工業에 從事하고 있었다. Hartwell, *Ibid.*, pp.398-9.

의해서 穀物生産이 人口보다 크게 增加했고 實質賃金은 上昇했다고 主張하고 “經濟成長이 短期的으로 實質所得의 低下를 招來한다는 것은 理論적으로는 있을수있으나 1人當 國民所得이 上昇한 半世紀나 되는 長期에 걸쳐서 富益富 貧益貧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⁷⁶⁾고 말하고 있다. 하아트웰은 英國의 所得分配가 1800年에서 보다는 1850年에 더욱 公平했다고 보고 一般的으로 資本소득, 產出量 그리고 實質所得의 同時的 및 同率의 上昇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國民所得에 있어서의 賃金分配分은 產業革命의 初期부터 國民所得에 比例해서 增加했을 뿐만아니라 특히 1800—1860年에는 國民所得 보다는 크게 上昇했다고 보고 그의 根據로서 賃金格差에서 오는 農業勞動者에 對比한 工業勞動者의 增加와 全人口에 對한 서비스部門의 被雇傭者比率의 增加를 들고 있다. 즉 工業化以前의 優勢한 農業經濟의 過少雇傭勞動이 漸次로 工業 및 서비스業에 보다 充分히 雇傭됨에 따라서 總人口에서 보다 有利한 職業을 가진 者의 比率이 增大하고 그만큼 勞動者의 生活水準은 改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影響을 주는 政府에 의한, 특히 課稅와 社會福祉費를 통한, 所得의 再分配도 考慮되어야 한다. 政府收入은 主로 間接稅에 依存하고 그속에서 關稅收入은 1840年까지는 그의 比率이 增大하고 그후 安定되었다. 1824年以後의 關稅引下는 一般消費財의 價格을 引下시켜 從來의 奢侈品이 大衆化되는 傾向에 있었고 其他 間接稅도 戰後 引下되어 1825—56年에 比較的 安定되었다. 政府의 總歲入도 1815—43年에 絶對額으로나 國民所得의 比率에서나 減少했다. 歲出도 減少하고 貧民救恤費支出도 1818年에 790萬파운드였던 것이 큰 變動을 하면서 1848年에도 620萬파운드에 不遇했다. 하아트웰은 政府의 稅收入과 支出에서 勞動貧民에게 두드러지게 有利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點에서 政府活動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政府立法이 勞動者階級에 有利했다. 工場法, 物品賃金制廢棄法, 權能附與法, 貯蓄銀行法, 友愛團體法, 一般恩典年金慈善法, 地方自治團體를 改善하는 法律 등이 制定되고 그들의 法令에 의해서 勞動時間의 短縮, 兒童就業可能年令의 制限, 鑛山에서의 婦女 및 兒童就業禁止, 工場雇用兒童을 위한 教育施設의 改良, 市當局에 의한 上下水道의 改良이 이루어지고 널리 人間의 健康 安全 및 福祉의 初步的인 要求가 充足되었다. “人道主義와 立法上의 壓力이 工業의 社會間接費를 增大시켜 直接的으로 勞動者에 惠澤을 주고 從前에는 勞動榨取에 의해서 非能率이 保護되었던 限界線上的 雇傭者들을 工業經營에서 遂出했던 것이다.”⁽⁷⁷⁾

(76) *Ibid.*, pp. 401-2.

(77) *Ibid.*, p. 404.

所得分折을 통해서 樂觀論을 主張한 하아트웰은 다음에 消費分折을 한다. 그는 消費分折을 하기에 앞서 貯蓄과 賃金統計를 檢討하여 貯蓄은 1817—1850년에 그 大部分이 勞動者階級으로 構成된 貯蓄者數와 貯蓄額이 增加되었고 한편 戰後에 貨幣賃金은 變動이 別로 없이 安定的인데 工業製品과 農產物價格은 低下했다고 主張하고 그것을 1815年以後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向上的 하나의 指標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1815年以前에 生活水準이 크게 上昇하지 않은 것은 工業化가 아니라 諸資源이 非生産的 戰爭努力에 充當된 데에 起因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勞動者의 實質賃金의 上昇과 消費擴大가 產業革命과 같은 長期의 커다란 經濟的擴大를 뒷바침한 市場擴大의 하나의 重要的 要因이 되고 있다고 示唆하고 있다. 하아트웰의 消費分折은 호브스보움과 같은 方法으로 이루어지면서 相反되는 結論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注目된다. 하아트웰은 1850年 以前의 消費統計——그것은 充分한 것은 아니지만——를 分折한 結果 大部分의 食料品과 其他的 消費財의 消費가 變動을 隨伴하면서도 適切하게 增加했다고 말한다. 즉 1811—50년에 1人當 食肉, 雪糖, 紅茶, 麥酒, 煙草, 버터, 차이즈 등의 消費가 增加했고 그만큼 英國人의 食生活도 改善되었다는 것이다. 하아트웰은 食料品消費增大의 一般의 傾向을 指摘하고 小麥, 감자 食肉 魚類等 主要食料品の 消費內容을 檢討하고 있다.

小麥消費의 움직임에 關해서 하아트웰은 叙上한 호브스보움의 小麥消費減少와 그에 代身한 감자 消費增加說을 뒷바침할 證據가 없다고해서 그것을 排斥하고 오히려 호브스보움이 批判한 마카로크의 小麥빵 消費增加說을 取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根據로서 그는 農業生産이 人口보다도 빨리 增大했다고 假定하여 인클로우저에 의한 耕地擴大와 單位面積當 產出量增大가 그것을 뒷바침했다고 보고 小麥과 빵의 價格이 1822年 以後에 比較的 安定하고 있는 것으로도 長期에 걸친 小麥 및 小麥粉의 不足은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호브스보움이 살라만(R.N. Salaman)의 數字에 依據해서 감자 消費量의 增加를 低質食糧의 高質食糧에의 代替 따라서 勞動者의 食生活의 惡化라고 본데 對해서 하아트웰은 그것은 單純히 嗜好의 變化에 의한 것이며 其他的 野菜와 靑果物의 消費의 커다란 增加에 對應한 現象에 不過하다고 말하고 있다. 食肉消費도 增加하여 19世紀 前半期에 英國의 勞動者階級은 食肉을 普通 食事의 一部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點에서도 唯一한 統計史料로서 스미드필드市場에서의 그것에 依據한 호브스보움이 런던의 人口增加率에 對比해서 屠殺家畜數增加率이 相對적으로 低位에 있다는 事實로서 食肉消費가 減少했다고 보는데 對해서 하아트웰은 그들 統計史料는 家畜重量의 增大와 餘他市場으로부터의 食肉供給을 無視하고 있다고 批判한다. 런던이 적고 스미

드윅트가 相對的으로 重要했던 18世紀 中葉에도 런던市民이 消費하는 食肉의 3分の 1은 地方市場에서 供給되었고 19世紀에 들어와서는 특히 鐵道建設以後에는 餘他市場으로부터의 食肉供給은 더욱 增加했다. 따라서 記錄되지 않은 이들 市場으로 부터의 供給을 考慮에 넣으면 런던에서의 食肉供給은 크게 增加했다. 뿐만아니라 버밍엄이라던가 리버풀 그리고 其他 工業都市에서의 食肉供給도 增加했다. 그 結果 食肉價格은 1819—41년에 一般的으로 安定하고 40年代에 들어서 變動하고 있는 것이다. 魚類도 19世紀 前半期에 그의 消費가 增加했다. 특히 1825年の 鹽稅撤廢, 1830年以後에는 魚獲技術의 變革, 新漁場의 發見 그리고 海陸에서의 輸送手段의 變革 등에 의해서 魚類의 供給이 크게 增加했고 따라서 價格低下와 消費增加를 가져왔다. 消費分析을 통해서 하아트웰은 結論的으로 1800—1850年에 消費된 食料品の 量과 種類가 增加하고 1850年の 런던의 基本的 食料品の 消費는 現代의 英國의 그것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지는 않았었다고 말하고 있다. 叙上한 諸分析을 통한 하아트웰의 結論은 明白하다. 즉 잉글랜드의 大多數의 사람의 生活水準은 19世紀 前半에 改善되었다는 것이다. 그 改善은 對佛戰時中에는 緩慢하게, 1815年以後에는 보다 빠르게 그리고 1840年以後에는 急速히 이루어졌다. 平均壽命이 部分的으로 生活水準에 依存한다고하면 이 時期의 平均壽命의 延長은 生活水準向上의 보다 強力한 證據가 된다. 平均壽命은 延長되고 幼兒死亡率은 크게 減少되었다.⁽⁷⁸⁾ 이 時期의 平均壽命의 延長은 醫學上의 改善에 의한것이 아니라 社會經濟的環境의 改善에 의한 것이었다.⁽⁷⁹⁾ 그러나 平均壽命의 延長과 消費의 增加가 福祉增大의 最終의 尺度는 아니다. 하아트웰은 “大部分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上昇했다는 것은 그것이 높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急速히 上昇했다는 것도 아니고 悲慘한 貧困이 없다는 것도 아니며 循環의 變動과 가장 悲慘한 性格의 技術的失業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다. 이 時期의 困窮을 無視한다는 것은 새로운 工業에 의해서 創出된 富와 機會를 否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愚鈍한 것이다.”⁽⁸⁰⁾ 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면 이 時期의 不滿은 어디에 그 原因이 있었는가. 이에 對해서 하아트웰은 크게 擴張된 새로운 問題 또는 낡은 問題가 잘 處理되지 못했다는데에 起因한다고 본다. 즉 增加하는 人口, 都市化, 工場條件 그리고 景氣變動과 雇傭등의 諸問題에 適切하게 對應하지

(78) H.J. Habakkuk, "The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ember, 1958; J.T. Krause, "Changes in England Fertility and Mortality," *Economic History Review*, August, 1958.

(79) T. McKeown and R.G. Brown, "Medical Evidence Related to English Population Changes in the Eighteenth Century," *Population Studies*, November, 1955.

(80) Hartwell, *op. cit.*, p.413.

못한데서 起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時期의 緊張은 急速하게 變化하는 社會的 및 經濟的 諸關係에서 自然的으로 發生한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는 適切한 方法이 當時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悲慘의 原因은 貪欲보다도 無識이었다. 어떤 境遇에도 產業革命에 基因한다고 생각되어온 害惡의 많은 것은 前工業時代에도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다.”⁽⁸¹⁾ 그래서 하아트웰은 產業革命前의 英國에 관한 잘못된 假定에 의해서 많은 誤解가 나타났다고 主張한다. 그러한 假定이라는 것은 農村生活이 都市生活 보다 좋았다는 것, 自家勞動이 工場勞動보다도 좋고 安定的이었다는 것, 兒童 및 婦女勞動은 새로운 現象이었다는 것, 家內工業制가 工場制보다도 좋았다는 것, 貧民街의 不正食品은 工業社會에 特有的한 것이라는 것 등이다. “換言하면 黃金時代에 관한 오랜 동안의 神話, 즉 過去가 보다 좋았다는 信條가 있었기 때문이다.”⁽⁸²⁾ 이러한 諸假定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아트웰은 具體的으로 指摘한다. 즉 그는 農村生活도 都市生活과 마찬가지로 悲慘한 것이었다는 것, 18世紀에도 兇作에 따르는 規則的인 景氣變動은 複雜化되었고 經濟的 不安定이 컸었다는 것, 產業革命以前에 이미 많은 賃金勞動者와 婦女 및 兒童勞動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 不正食品에 관한 苦情은 1771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 道德水準의 墮落도 없었다는 것 등을 具體的으로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하아트웰은 產業革命이 낳은 어두운 面보다도 밝은 面을 強調한다. “勞動者에게는 넓은 機會와 可能性이 새로이 주어졌다. 이 時代에 나타난 不滿은 生活水準의 單純한 產物이 아니라 새로운 豐饒한 時代의 比準이 가져온 憤怒와 野心의 結果이기도 했다. 進步의 觀念은 매우 心理的이고 確實히 相對的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進步를 過去의 忘却된 地位로부터가 아니라 地平線과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멀어져가는 理想에 비추어서 測定하는 傾向에 있다. 現世代는 先祖의 早期의 必要라던가 成功에 關心이 있는 것이 아니라 假定된 普遍的安樂 또는 富裕의 可能性에 비추어서 생각된 그 自身の 苦惱와 挫折에 關心이 있다.”⁽⁸³⁾ 하아트웰은 19世紀 前半期에도 不滿, 苦惱 그리고 無秩序가 있었고 또한 있을 수 있었다고 是認하면서도 그들은 前時代에도 나타난 것이며 19世紀에 들어와서는 生活水準의 改善에 의해서 오히려 緩和되었다고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產業革命期의 苦難에 관해서 重要的한 것은 그것이 自身の 解決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즉 工業과 農業에서의 生産性增大와 그리고 社會에 있어서는 社會的 諸

(81) *Ibid.*, pp.413-4.

(82) *Ibid.*, p.414.

(83) A.L. Bowley, *Wage and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since 1860*, 1937, p.x. cited by Hartwell, *ibid.*, p.415.

條件이 改善될 것이며 改善될 수 있고 또한 經濟的 進步가 不可避하다는 信念이다.”⁽⁸⁴⁾

4. 悲觀論과 樂觀論 = 討論

애슈톤의 樂觀論에 對한 호브스보웬의 悲觀論은 하아트웰의 보다 積極的인 樂觀論의 挑戰을 받게 되어 이 論爭은 直接的으로는 後二者間에서 展開되게 되었다. 1963年 『經濟史評論』誌에서 展開된 『産業革命期의 生活水準』⁽⁸⁵⁾이라고 한 主題의 討論은 호브스보웬과 하아트웰이 各自의 積極的인 主張을 基礎로해서 그것을 再確認하고 相對方의 主張을 批判한 것으로서 兩者의 見解의 差異點과 問題點을 明確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호브스보웬의 主張을 보자. 호브스보웬은 이 『討論』에서 스스로를 戰場에 臨한 戰士로 比喩하여 하아트웰을 가장 好戰的인 改善論者라고 부르고 樂觀論一般을 批判하던 서도 그를 論難하는데에 注力하고 있다. 그는 英國經濟史學界의 正統說인 클래팜—애슈톤의 樂觀論이 於間의 많은 學者들의 研究에 의해서 瓦解되어 가고 있으나 그렇다고 悲觀論이 強化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클래팜—애슈톤을 極端論者라고 해서 排除하고 그에 代身해서 어두운 傳統의 見解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證明할 義務가 아직도 樂觀論者側에 있다고 主張한다. 그는 自身의 論文이 나왔던 1957年以後 史料面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다고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命題로 問題를 要約하고 있다. 즉 ① 아직도 問題의 時期에 관한 滿足할만한 實質賃金指數가 存在하지 않으며 따라서 實質賃金이 上昇했다고 하는 見解는 信賴할 수 있는 史料에 依據하고 있지 않다는 것 ② 實質賃金を 얻는 有効한 方法은 消費에 관한 研究이며 現在 消費에 관한 史料는 不完全하나 그것은 1840年代中葉 以前에 消費의 顯著한 增加가 있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 ③ 慢性的 및 循環的 失業은 特別히 不況期에는 매우 높았지만 그 것이 實質賃金에 미친 影響은 앞으로 檢討되어야 한다는 것 ④ 人口의 一部分은 改善되고 他部分은 被害를 입었다는데 對해서는 意見一致를 보고 있으나 그 구組의 相對的 크기를 推定하기에는 現在史料는 너무나 斷片的이라는 것 ⑤ 樂觀論이 國民所得推計에 의해서 그의 上昇이 1人當 實質所得의 上昇 그리고 大多數의 사람의 實質所得을 上昇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客觀的 事實이 아닌 一般的推論과 所得의 公平한 分配라는 假定에 基礎를 둔 것이지만 그러한 推論은 直接的 史料에 依據해야하고 公平한 分配라는 假定에 對해서는 所得分配의 不公平이라고 하는 假定이 보다 現實的이라는 것이다.

(84) *Ibid.*, p. 416.

(85) E.J. Hobsbawm & R.M. Hartwell, "The Standard of Living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Discussion," *Economic History Review*, XVI, 1963.

이렇게 보면 1790年代初—1840年代初의 英國人의 大部分의 生活水準이 顯著히 上昇했다고 하는 假定은 있을수 있을 것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호브스보웬은 問題의 時期는 一般的으로 設定되고 있는 1800—1850年이 아니라 1843—4年을 下限으로 한 時期이며 그以後에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는 點에서는 意見一致를 보고 있으므로 1843—4年에 관한 史料를 그 以前時期의 傾向을 提示하기 위해서 利用될 수는 없다고 批判하고 있다.

따라서 호브스보웬은 樂觀論이 確立되기 위해서는 悲觀的인 當時代의 意見과 非計量的의 및 計量的 史料를 否定할만한 보다 積極的인 論據가 提示되어야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論據는 提示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호브스보웬은 맑스에서 클레팜에 이르기까지의 大部分이 悲觀論的인 立場에서 있었다는 것은 하아트웰의 否定에도 不拘하고 애슈톤自身이 是認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樂觀論者들은 悲觀論者들을 그들이 反資本主義的의 偏見을 가지고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不信하려고 하고 있으나 마카록크라던가 맥고슬리등 樂觀論者들의 極端한 偏見에 對해서는 아무런 批判이 없다고 非難한다. 또한 樂觀論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多數의 當時의 史料를 除去하기 위해서는 強力한 反對 史料가 必要하다. 政府의 立法의 效果도 하아트웰이 主張하는 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1833年의 工場法은 確實히 하나의 前進이 었으나 1840年代初以前에 그것이 얼마만큼 效果的으로 運營되었는지 疑問이며 其他의 社會 및 公共衛生立法은 그 效果를 無視해도 좋고 1831年의 現物賃金廢止法(Truck Act)은 死文이었다. 따라서 호브스보웬은 生活水準의 向上을 主張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다 強力한 證據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왜냐하면 一般的歷史現象으로는 폴라드에 의하면 “主要한 社會的變化에 適應해야 했던 時期에 있어서의 大多數의 人口의 消費과 物質的生活에의 壓迫”이 나타났고 또한 “經濟理論은 어떠한 商標의 것이던 工業化初期에 있어서의 生活水準의 큰 改善에 有利한 假定보다도 不利한 假定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⁸⁶⁾ 따라서 이와 다른 事情을 定立할 義務는 樂觀論者에 있다는 것이다.

19世紀初의 條件이 비록 劣惡하고 改善되지 않았다고해도 悲觀論者가 理想化한 18世紀보다는 훨씬 良好했다고하는 樂觀論者 특히 하아트웰의 主張도 호브스보웬은 批判한다. 貧民窟이라던가 不正食品은 “産業革命의 固有한 產物”은 아니지만 1780年보다 1840年에 보다 많았으며 計量的 意味에서 都市生活에 比한 農村生活이 良好했다는 것 보다도 農村勞動者의 平均壽命이 都市勞動者의 그것보다 훨씬 길었다는 것이 農村의 衛生條件의 優位를 말한대며는 都市化率이 擴大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生活環境이 惡化되고 있

(86) *Ibid.*, p. 126.

다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家內工業과 그의 搾取의 問題를 보면 樂觀論者가 「家內勞動」과 同一視되는 18世紀를 「工場勞動」과 同一視되는 19世紀와 對比시키고 있는것은 잘못이다. 産業革命은 家內工業을 工場으로 代置한 것이 아니라 兩者를 增殖시켰으나 結局에는 前者를 絶滅시켰으므로 社會的 衝擊을 주었다. 또한 産業革命以後의 家內工業은 그 以前보다도 魅力을 잃고 있었다. 따라서 工場勞動者와 工場外勞動者의 同時的 比較에 依해서 生活水準을 論한다는 것은 不適當한데 樂觀論者는 아직도 그러한 比較를 하고 있다고 호브스보웬은 批判하고 있다.

호브스보웬은 “어떻든 前工業時代를 工業時代와 純粹히 量的으로 比較한다는 것은 王 없이 리어를 演出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樂觀論者와 悲觀論者와의 論議는 經濟學的인 것임과 同時에 社會學的인 것이다. 貧困과 不潔만이 問題가 아니라 하나의 生活樣式에서 다른 生活樣式에의 變化도 重要하다”(87)라고 말하고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論議가 計量的인 方法만이 아니라 質的方法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한다고 主張한다. 호브스보웬은 1940年代의 勞動者의 困窮이 「二次的」이고 「自招한」 貧困에 基因한다는 쉘러너(W. H. Chaloner)와 헨더슨(W.O. Henderson)등의 極端論者(88)와 工業化의 社會的結果에 관해서는 사람에게 따라서 相異한 見解를 갖는다고하는 하아트웰(89)에 對해서 “우리는 突然한 大規模의 社會的變革의 過程에서 賦課된 數多한 人間의 苦惱에 관해서 十分 알고있으며 그 結果 招來된 物質的 利益은 이들 苦惱를 相殺하도록 利用될 수 없으며 單純히 適當한 理由가 發見되지 않는다는 理由에서 大衆의 不幸과 困窮을 過少評價하는 사람들은 이 問題에 관해서 論할 資格이 없다”(90)고 激한 語調로 非難하고 있다. 計量的인 分析에만 依存하는 樂觀論者로서는 完全히 說明할 수 없는 이 時期의 深刻한 社會的 不滿의 存在가 勞動貧民의 苦惱의 部分的인 尺度이며 그들이 느낀 計量化되지 않은 精神的인 損失意識은 매우 實質的인 基礎를 가지고 있었다. 호브스보웬은 結論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工業化의 社會的 壓迫을 是認한다는 것은 그들의 不可避性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勿論 그들은 最低限으로 抑制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進歩를 위한 犧牲을 拒絕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重要性을 是認하려고 하지않는 것은 歷史의 如何한 理解도 不可能케 하는 것이다.”(91)

(87) *Ibid.*, p. 128.

(88) W.H. Chaloner and W.O. Henderson, *History Today*, 1956, p. 855.

(89) Hartwell, *Interpretatio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A Methodological Inquiry*, p. 242.

(90) Hobsbawm, *Ibid.*, p. 129.

(91) *Ibid.*, pp. 130-1.

호브스보움의 이러한 樂觀論者 특히 하아트웰批判에 對해서 하아트웰은 『討論』Ⅱ에서 猛烈한 反論을 提起하고 있다. 그는 從前의 그의 主張—— 즉 ① 이 論爭이 價値에 관한 論議와 別個의 것을 同一한 것으로 論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混亂되어 왔다는 것 ② 産業革命期에 生活水準은 上昇傾向에 있었고 그것은 戰時에는 緩慢히, 1815年以後에는 보다 빨리 그리고 1840年代以後에는 急速하게 改善되었다는——을 다음과 같은 것을 強調함으로써 修正하고 있다. 즉 ① 生活水準은 높지 않고 40年代以前에는 急速히 上昇하지는 않았다는 것 ② “悲慘한 貧困”과 “가장 困窮한 性格의 周期的 및 技術的失業”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 ③ 上昇하는 實質賃金이 “究極의 福祉”의 尺度는 아니라는 것 ④ 産業革命期은 政治的不滿과 社會的激變의 時代이기도 하나 勞動者階級과 婦人에게는 機會가 增大한 時期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自己를 「極端論者」라고 規定하는 호브스보움도 엥겔스를 擁護하고 樂觀論을 攻撃하는 만큼 그의 主張이 強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兩者의 主張이 相當히 溫和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하아트웰은 호브스보움을 批判한다. 우선 그는 스스로를 「戰士」로 比喩한 호브스보움이 樂觀論者가 依據하는 史料가 悲觀論의 誤謬를 證明할때까지는 樂觀論은 不當하다고 主張함으로써 勝利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獨斷이며 또한 樂觀論者가 하지도 않은 論述이라던가 갖고 있지도 않은 見解를 그들에게 歸屬시킴으로서 樂觀論者를 不信하려하고 있다고 非難한다. 예를들면 호브스보움은 클레팸과 애슈튼을 極端論者라고 부르고 있지만 클레팸은 1939년에 이미 그의 「極端論」을 修正하고 있는 것이다⁽⁹²⁾. 또한 하아트웰은 많은 例를 提示하면서 호브스보움이 樂觀論者를 잘못 引用한다던가 잘못 表示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하아트웰은 호브스보움의 이러한 誤謬와 偏見을 指摘한 後에 그의 主張을 批判한다. 첫째로 實質賃金指數의 缺陷 따라서 賃金—物價資料의 不確實性을 強調하는 호브스보움에 對해서 하아트웰은 많은 學者들에 의해서 作成된 物價 및 賃金指數는 有用하며 그것이 호브스보움의 結論에 不適合하다고해서 無視되어서는 안된다고 主張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統計를 利用해서 게이어, 로스토우 및 슈왈츠는 1815—50년에 貨幣 賃金은 네트로 食糧價格보다도 적게 그리고 其他의 小賣商品보다는 훨씬적게 低下했다고 結論하고 있으며⁽⁹³⁾ 던 및 쿨은 勞動者階級の 生活水準이 對佛戰爭期에는 거의 보잘것 없이, 戰爭直後에는 傾向의으로, 第2/4半世紀에는 前例없이 急速히 그리고 第3/4 및 第

(92) J.H. Clapham, *op. cit.*, 2nd ed. Preface

(93) A.D. Gayer, W.W. Rostow and A.J. Schwartz, *The Growth and Fluctuations of the British Economy, 1790-1850*, 1953, Vol. II, p.657.

4/4半世紀에는 疑問의 餘地없이 急速히 改善되었다고 論하고있다. ⁽⁹⁴⁾ 1815年以後의 貨幣 賃金과 物價의 相反되는 움직임에서 하아트웰은 다음과같이 推論한다. 즉 ① 이 現象은 物價低下의 貨幣의 解釋에 對立하는 強力한 證據이며 勞動組合이 아직도 勞動市場의 供給側 面에 重要한 獨占의 壓力을 行使할 程度로 強力하지 못했으므로 實質賃金의 上昇傾向은 勞動生産性의 增加와 結付되고 있었다는 것 ② 勞動의 競爭, 技術的 및 構造的失業 그리고 景氣循環등 賃金을 引下시키는 諸要因은 賃金決定에 있어서 다른 모든 物價가 下落할때 貨幣賃金을 上昇시킨 持續적으로 擴大되는 勞動需要에 의해서 相殺되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生活水準에 關連을 가지는 失業問題에 관해서는 하아트웰은 그 自身이 技術的失業을 除外해서 그것을 適切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認定하면서 慢性的인 周期的失業이 비록 短期的 現象일지라도 實質賃金의 上昇에서오는 長期의 利益을 相殺하고 남음이 있었다고 하는 호브스보움의 主張에 對해서 그러면 왜 物價低落期에 貨幣賃金은 低下하지 않았는가 라고 反問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周期的(循環的)失業은 그 景氣循環의 強度가 時期에 따라 매우 다르다면 相異한 長期에 관한 實質賃金을 比較하는데 關連을 가짐에 不過하다. 1800--1850年의 景氣循環이 그以前 또는 그以後의 그것 以上으로 失業에 責任이 있다는 것은 호브스보움의 主張에도 不拘하고 證明되고있지 않는 것이다. 問題의 時期設定에 관해서도 호브스보움의 1845年 轉換期說에 對해서 하아트웰은 1850年을 轉機로 본다. 하아트웰은 1845年以後의 生活水準의 改善을 가져온 變化率과 1800年에 對比해서 1850年代初에 到達한 그의 絶對的水準을 重視해서 萬若에 호브스보움이 主張하는바와 같이 1845년까지 實質賃金의 安定乃至는 減少가 있었다고하고 50年代初의 生活水準이 1800年의 그것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한다면 改善의 全部는 5年乃至 10年間に 일어났을 것이라고 指摘한다. 그래서 하아트웰은 만약 이러한 일이 說得的이지 않다면 호브스보움은 1847年--1856年의 여러가지 史料를 不信하던가 또는 實質賃金 따라서 生活水準이 長期에 걸쳐서 改善했다는 自己의 主張을 是認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樂觀論者가 國民所得推計에 基礎를 두고 公平한 所得分配를 假定하고 있으나 그것은 實證되지 않고 그와 「反對되는 假定」에 弱하다고하는 호브스보움의 批判에 對해서 하아트웰은 成長과 所得에 관한 理論上의 一般化를 提示하면서 反論한다. 즉 ① 一般的으로 長期에 걸쳐서 所得과 그의 構成分(消費와 投資)은 成長과 同時에 같은 率로 上昇했다는 것 ②

(94) Phyllis Deane and W.A.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 1962, p. 27.

一般的으로 國民貯蓄率의 上昇은 1人當所得의 上昇에 對應했다는 것 ③ 長時에 걸친 國民所得에서의 賃金の 畧은 成長의 初期에는 一般的으로 安定的이고 그後에는 漸增했다는 것 ④ 長期에 걸친 經濟發展은 보다 公平한 所得分配을 隨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一般化는 1850年以後의 英國에는 確實히 適用이 되는 것이며 그 以前에 관해서는 實質國民所得, 資本蓄積 및 生産性이 모두 人口보다 急增하고 있으므로 勞動者의 生活水準도 上昇하고 있었다고 假定하는 것이 道理에 맞는 것이다. 産業革命期의 큰 投資가 平均의 消費를 減縮시켰다고 하는 批判에 對해서는 하아트웰은 딘과 콜의 推計에 依據해서 初期에는 國民所得에 對比한 資本形成水準은 漸高되었음에 不過했고 貯蓄은 보다 生産的으로 利用되고 새로운 發展은 所得에 對한 資本率이 比較的 낮은 工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資本蓄積率의 上昇—— 1780年의 5 또는 6%에서 1860年의 10%에의——은 初期에서 보다는 1830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어떻게 所得決定理論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短期的으로 貯蓄增加가 消費減少를 意味한다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半世紀를 考察하고 있는 것이며 그동안에 投資의 生産性은 技術進步와 工業組織의 改良에 의해서 높았고 40年代의 鐵道時代까지 大部分의 投資의 實質費用은 相對的으로 낮았다.”⁽⁹⁵⁾ 低廉한 消費品의 供給과 實質賃金의 上昇은 國內市場을 擴大시켰으며 英國의 繼續의인 工業化를 뒷받침한 것은 外國需要보다도 國內需要의 擴大였던 것이다.⁽⁹⁶⁾

以上 計量的인 側面에서의 批判을 한 하아트웰은 最後에 호브스보움의 計量化되지 않은 質的인 側面에서의 主張을 批判한다. 그는 호브스보움이 18世紀와 19世紀의 比較가 잘 될수없다고 하면서 18世紀를 黃金時代로 보고 産業革命에 의해서 勞動者는 精神的 損失을 입었다고 主張하는데 對해서 그가 그러한 것을 實證했어야 한다고 指摘하고 農村에서의 平均壽命이 보다 길다는 것은 證明이 안되고 死亡率의 減少도 最近의 研究에 의하면 經濟的 및 社會的 狀態의 改善에 基因한다고 主張한다. 또한 하아트웰은 호브스보움의 社會學的退化論에 對해서는 그것이 莫然한 것이며 한편에 ① 婦人의 社會的 經濟的獨立性的 增大 ② 兒童勞動의 減少 ③ 友愛組合, 勞動組合, 貯蓄銀行, 協同組合 등의 增加 ④ 讀書能力的 增大 ⑤ 社會的無秩序의 性格變化 등 社會的 利益도 있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IV. 要約과 展望

以上에서 우리는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한 論爭을 概觀했다. 이 問題에

(95) Hartwell, "Discussion," p.141.

(96) Deane and Cole, *op. cit.*, p.310.

관해서는 産業革命이 進行되고 있던 當時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觀點과 方法을 달리하면서 樂觀論과 悲觀論이 서로 對立되어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見解의 差異를 낳게한 原因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論者들의 政治的 偏見을 들수있다. 즉 一般的으로 産業革命을 繼續的인 進歩의 過程으로 보고 그의 밝은面을 強調하는 樂觀論者는 政治的으로는 위그黨(Whig), 自由黨및 保守黨의 立場에 있고 한편 그것을 斷續的인 不平等의 深化過程으로 보고 그의 어두운面을 強調하는 悲觀論者는 當時에는 토오리黨 그리고 19世紀末—20世紀에는 케비안(Febian)社會主義의 立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思想的立場은 한편에서는 私企業의 自由로운 成長을 基盤으로 하는 資本主義의 制約없는 自己發展에 無限의 信賴를 주는 맨체스터(Manchester)의 自由主義이며 다른면에서는 自由放任에 基盤을 둔 資本主義의 展開過程에 經濟的 不平等의 深化라는 現象을 보고 公平한 分配를 強調하는 케비안社會主義이다. 그들은 그들의 信念에 有利하게 史料를 利用하고 解釋하는 傾向에 있었고 그것이 見解의 差異를 招來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거기에는 「道德的」및 「美學的」側面 그리고 其他의 非經濟的 側面까지 考慮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政治的및 道德的인 價値判斷은 매우 主觀的인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産業革命과 같은 커다란 變革의 結果에 관해서 見解의 一致가 아니라 對立을 가져오고 또한 問題를 複雜化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한 見解의 差異는 위의 價値判斷에 基礎를 두고 있는 歷史認識의 方法上의 差異에서도 나타났다. 즉 産業革命을 經濟發展過程에서의 連續的인 量的擴大의 過程으로 보고 計量的인 方法에 의해서 그것을 分析評價하는 立場에 있는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樂觀論의 見解를 가지고 있는데 對해서 한편 그것을 斷續的인 社會經濟的變革의 過程으로 보고 質的인 方法에 의해서 그것을 解釋하는 立場에 있는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悲觀論의 見解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클래팜—애슈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토인비—해먼드夫妻로 代表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上의 差異에 立脚하고 있는 限, 例를들면 해먼드夫妻가 物質的=量的인 側面에서 클래팜의 樂觀論을 部分的으로 承認했다할지라도 兩者間의 論爭은 平行線을 걷어갈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2次大戰後에는 論爭의 性格이 크게 달라졌다. 즉 이 問題가 量的側面과 質的側面 또는 計量的方法과 質的方法이라고 하는 相異한 側面과 方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質的側面을 考察의 對象으로부터 一H 除外하고 主로 經濟的=量的側面을 다같이 計量的方法에 의해서 論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서 비로서 共通의 廣場에서의 問題提起와 그의 論議가 可能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우리는 애슈톤, 호브스보웬 그리고 하아트웰

의 論爭을 통해서 檢討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賃金, 物價, 交易條件, 人口, 失業, 消費 그리고 國民所得 등에 관한 統計를 利用하여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物質的側面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같이 이러한 計量的方法에 의한 分析에도 不拘하고 基本的으로는 殘存하는 이들 諸史料의 不充分함과 殘存史料의 信憑性的 缺如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問題에 관한 一致된 結論에는 到達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브스보움과 하아트웰의 論爭에서 볼수 있듯이 極端한 對立이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⁹⁷⁾

그럼에도 不拘하고 質的方法이 서로 다른 次元에서 精神的인 問題를 主觀的으로 다루므로서 極端한 見解의 差異를 가져 오고 때로는 問題를 複雜化시켰는데 對해서 計量的 方法은 同一한 廣場에서 物質的인 問題를 보다 統計數字를 利用해서 客觀的으로 다루므로서 미록 거기에는 아직도 意見의 對立이 있기는하나 이 論爭을 크게 進展시켰다는 것은 事實이다. 우선 그것을 통해서 論爭의 範圍가 매우 縮少되고 問題點이 더욱 明確해졌다. 즉 産業革命期의 勞動者一般의 生活水準이라고 莫然히 把握하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時期와 業種 및 地域에 관한 問題가 明確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時期的인 問題에 관해서 보면 18世紀와 1840年代 以後에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改善되었다는 것과 對佛戰爭期와 戰後 回復期인 18世紀末에서 1820年에 이르기까지의 時期에 그것이 低下되었다는 것은 樂觀論者와 悲觀論者가 모두 認定하고 있으므로 問題는 1820年—40年의 時期에 관해서 意見이 相反되고 있다는 것이 明確해지고 있다. 또한 勞動者의 業種에 관해서는 熟練勞動者가 相對的繁榮을 했는데 對해서 綿織物 및 메리야스工業에서의 家內勞動者가 被害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地域에 관해서는 애슈튼 및 하아트웰과 같이 잉글랜드(England)를 對象으로 하느냐 또는 호브스보움과 같이 브리튼(Britain)을 對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結論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 明確히 認識되게 되었던 것이다.⁽⁹⁸⁾

그러면 現在까지 이루어진 論爭을 통해서 産業革命期의 勞動者의 生活水準에 관해서 말할수있는 것은 무엇인가. 님은 全體로서 史料는 이 時期에 生活水準의 低下보다도 改善을 示唆하고 있는것 같다⁽⁹⁹⁾고 慎重히 말하고 있으나 하아트웰은 國民所得과 富, 生産指數, 賃金 및 物價, 消費傾向 그리고 社會指數가 모두 平均生活水準의 明確한 上昇을 나타내고 있다고 強力히 主張하고 있다. 그래서 하아트웰은 最近에 樂觀論이 보다 優勢해지

(97) 計量的的方法和 質的方法의 意義에 관해서는 W. Woodruff, "Capitalism and Historian: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VI, No. 1, 1956 參照.

(98) A.J. Taylor, "Progress and Poverty in Britain, 1780-1850: A Reappraisal," *History*, Vol. XLV, No. 153, February 1960, pp.29-30.

(99)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65, p.249; 姜命主譯, 『英國經濟의 工業化過程』, 1968, 271面

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原因으로서 ① 叙上한 有利한 史料의 存在 ② 經濟發展의 近代理論에 依據해서 長期의 經濟的 進歩가 富益富 貧益貧을 招來한다고 하는 思考方式에 對해서 疑感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③ 進歩의 反對者가 犯한 誤謬, 混亂 및 妄想에 관한 認識이 增大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④ 經濟成長에 관한 關心과 그 結果로서의 急激한 成功的 成長期 (英國의 產業革命)에 관한 讚揚을 듣고 있다.⁽¹⁰⁰⁾ 하아트웰의 自信이 過하다는 것을 勘案하더라도 뉴앙스의 差는 있으나 樂觀論一般이 現在의 英國의 經濟史學界에서 優越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正統的 學說이 되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한편 하아트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程度로 樂觀論이 確立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아트웰이 樂觀論에게 有利한 史料로서 確信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對해서는 아직도 有力한 反論이 있는 것이다.⁽¹⁰¹⁾ 우선 工業化의 進展에 따른 國民所得의 增大 따라서 1人當所得의 增大가 平均해서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向上시켰다고 하는 주장에 對해서는 問題는 그의 分配構造이며 그것이 少數人에게 集中되어 分配가 不公平하거나⁽¹⁰²⁾ 또는 그것이 消費보다도 投資되어 새로운 財貨가 消費財가 아니라 資本財일 경우 大多數의 人口의 生活水準은 低下될수 있다고 하는 有力한 反論⁽¹⁰³⁾이 提起되고 있다. 賃金 및 物價에 관해서도 叙上한바와 같이 그 史料自體가 不充分하여 實質賃金에 관한 信憑性 있는 統計를 作成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을 基礎로한 樂觀論은 반드시 確固한 說得力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¹⁰⁴⁾ 다만 樂觀論은 實質國民所得이 人口보다 빨리 增大하는 時期에 勞動家族當 實質賃金이 全般的으로 低下되었다고는 생각할수 없다는 假定에 크게 依據하고 있으며 國民生産의 持續的 成長이 賃金上昇을 隨伴하지 않으면서도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上昇시킬수 있는 要因으로서 ① 보다 規則的인 雇傭機會의 創出 ② 低賃金雇傭에

(100) R.M. Hartwell, "Interpretatio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A Methodological Inqui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IX, No. 2, June, 1959, p.248.

(101) 호브스보움의 全般的인 反論 以外에도 計量的分析에 의한 悲觀論者로서 쿠진스키와 코린클라크를 들수있다. Jürgen Kuczynski, *A Short History of Labour Conditions Under Industrial Capitalism*, 1942, I, pp.19-42; Colin Clark,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0, p.48. ("平均的 實質所得이 19世紀初에 아세아의水準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記述은 1951年の 第2版에서는 削除되고 있다).

(102) 코린클라크는 1812년에는 1848年보다도 所得分配가 不公平했다고 말하고 있다. Colin Clark, *ibid.*, 2nd ed., 1951, pp.534, 538.

(103) S. Pollard, "Investment, Consumption and the Industrial Reva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S.S. Vol. XI, No. 2, 1958. 參照

(104) 이 點에 관해서는 本稿에서 指摘된 것 외에 다음의 諸論稿를 參照할것. Pallard, *ibid.*, p.221, Note 1. W. Woodruff, *op. cit.*, pp.3-5; A.J. Taylor, *op. cit.*, pp.252-3. 地域的 및 階級的 分析에 의해서는 오히려 實質賃金이 크게 上昇하지 못했다는 結論이 나오고있다. R.S. Neale, "Standard of Living, 1780-1844: a Regional and Class Study," 參照

서 高賃金屬傭에로의 移行 (3: 消費財物價의 下落과 商品選擇範圍의 擴大를 들고 있는것⁽¹⁰⁵⁾은 注目된다. 또한 이 論爭과 並行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人口增加의 原因과 性質에 관한 論爭에도 이問題에 對한 決定的인 解答을 주지 못하고 있다.⁽¹⁰⁶⁾ 食料品消費의 量的增大에 관한 史料도 不充分하고 最近에는 消費增大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主張이 나타나고 있으며⁽¹⁰⁷⁾ 그의 消費패턴의 變化的 意味도 明白한것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社會指數도 不充分하고 그에 관한 解釋도 相反될수 있는 것이다.⁽¹⁰⁸⁾

이렇게 해서 오래 繼續되고 있는 論爭은 計量的 方法에 의해서 그의 問題가 보다 明確해지고 範圍가 매우 좁혀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끝난것은 아니다. 그리고 計量的方法에 의한 接近에도 不拘하고 그의 基本에는 産業革命觀의 質的差異가 存在하고 있으며 그러한 限에 있어서 이論爭은 繼續될 것이다. 하아트웰은 이 論爭의 今後의 展望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1800--1850 年에 生活水準의 向上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史料가 얼마나 明白하던간에 進歩에 관한 다른 基準은 그의 低下를 示威하는데에 利用될 것이다. 價値에 관한 信念의 差異가 있는限 이 論爭을 存續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結局에 는 좋은 일이다. 歷史는 是認된 價値가 存在하지 않고 모든 解釋이 繼續的인 懷疑主義와 檢討에 回付되는 社會에서만이 生存할수있다.”⁽¹⁰⁹⁾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副教授

(105) Deane, *op. cit.*, pp. 253-3; 譯書, 275面

(106) T.H. Marshall, "The Population Problem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i, 1929; H.J. Habakkuk, "English Popula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i, 1953; do., "The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VIII, 1958; T. McKeown and R.G. Brown, "Medical Evidence Relating to English Population Changes," *Population Studies*, ix, 1955; J.T. Krause, "Changes in English Fertility and Mortality, 1781-18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i, 1958; M. W. Flinn, *British Population Growth, 1700-1850*, 1970. 參照

(107) J.E. Williams, "The British Standard of Living, 175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ol. XIX, No. 3, December 1966.

(108) 포오터는 計量的方法의 長點을 是認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여 計量化할수 없는 諸側面도 考慮해야 하는데에 經濟史家의 디레머가 있다고 指摘하면서 '國內的 內觀的 研究方法'에서 國際比較史的方法에의 前進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J. Porter, "'Optimism' and 'Pessimism' in Interpret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Historians Dilemma,"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I, 2, 1962, p. 259.

(109) Hartwell, "Interpretatio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249.